



책 빌려주는 자율주행 '도서관로봇' 나온다 4



김헌동 "토지임대부 주택 추진, 집값 안정화" 21

코스피(15일) ▲ 2999.52(+30.72P) 코스닥 ▲ 1029.03(+19.96P)  
환율(달러당 원화) ▼ 1178.40(-1.2원) 금리(국고채 3년물) ▼ 1.912%(-0.056%p)

〈음악 저작권료 공유 플랫폼〉

## “뮤직카우, 유사 금융투자 혐의”… 금감원 철퇴 맞나

주식처럼 매매 '음악 저작권'  
사실상 '저작권료 청구권' 취급  
취득한 저작권, 비율대로 재유통

금감원 “투자금 수익 분배 방식  
자본시장법 등 위반 여부 조사”

음악 저작권료 공유 플랫폼 '뮤직카우'가 인기를 받지 않고 유사 금융투자업을 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는다.

뮤직카우는 7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2021년 예비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 원 이상)으로 선정된 업체다. KDB산업은행도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등과 함께 뮤직카우의 시리즈C(170억 원 규모)에 투자했다.

▶관련기사 3면

1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금융감독원은 '인기받지 않고 유사 금융투자업을 했다'는 제보를 받고, '뮤직카우'를 조사 중이다.

뮤직카우는 저작권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주식과 같은 투자성을 띤 상품을 다루고 있음에도 금융투자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에 개인이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으나, 실상은 '저작권료 청구권'이라는 법률이 아닌

뮤직카우 개요 및 문제점

- 1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
  - 2 회원수 71만 명, 한 달간 거래액 708억 원
  - 3 중기부, 예비유니콘기업 선정
- 의혹 금융투자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금융투자 상품 취급

자의적으로 용어를 만들어 유사 금융상품처럼 운영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 방법, 범위 등을 놓고 내부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뮤직카우 플랫폼에서는 '캐시'로 음악 저작권을 구매할 수 있다. 캐시는 현금과 단위가 같다. 1캐시가 1원이다. 음악 저작권 구매는 주식과 비슷하다. 이용자가 매매가를 적어 구매주문을 걸어 놓으면 해당 가격에 매도하겠다는 매도자와 거래가 자동으로 체결된다.

이때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저작권은 실제 법적 저작권의 지분이 아니라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말한다. 뮤직카우가 취득한 '저작권료를 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들에게 지분비율대로 나눠 재유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뮤직카우는 2018년 10월 자회사 '뮤직카우에셋'을 설립, 저작권자들과 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을 조건으로 음악 저작권을 양도받도록 했다. 뮤직카우가 판매하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은 뮤직카우가 뮤직카우에셋에 청구하는 권리인 셈이다.

금감원은 투자자들로부터 금전을 모아 투자를 진행하고 수익을 나누는 뮤직카우의 운영 방식이 자본시장법, 유사수신행위법 등에 위배되는지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에 따르면 투자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은 요건을 갖춰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만이 다룰 수 있다.

박경진 전략마케팅팀 팀장은 “저작권료 청구권은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자산으로 볼 수 없다”며 “근본적으로 금융상품이 맞지만 현재 기준이 돼 있는 금융상품에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뮤직카우는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서 '조각투자', '뮤직테크' 열풍에 힘입어 급성장하고 있다. 9월 한 달간 거래액은 708억 3064만 원, 회원 수는 71만 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2019년 4만 2000명, 2020년 22만 8000명을 기록했던 누적 회원 수가 올해 급증한 것이다. 뮤직카우는 3년 내로 거래액 9000억 원, 매출 680억 원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한편 뮤직카우는 최근 상장 주관사로 미래셋증권을 선정하고 기업공개(IPO)와 관련해 투자자 모집 전략 등을 준비하고 있다.

정성욱 기자 sajikoku@



수능 D-2 문제지 배송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수험생 50만 9821명은 18일 전국의 1394개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른다. 이번 수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두 번째로 치러지는 시험이다. 교육부는 확진자와 자가격리 수험생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병원·생활치료센터 등 별도의 시험장을 마련했다. 15일 오전 세종시의 한 인쇄공장에서 인쇄책임자 및 관계 직원, 중앙협력관 등이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국 시험 지구별로 배부하고 있다. ▶관련기사 19면 연합뉴스

## 수소산업에 8000억 투자하면서 핵심인 '생산' 예산 겨우 12%뿐

정부, 유통·인프라만 치중

수소 경제 밸류체인에서 '생산'이 핵심으로 꼽히지만, 정작 우리 정부의 관련 투자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이투데이가 수소 관련 사업을 집행하는 5개 부처(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통신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의 올해 예산액을 입수·분석한 결과 예산 총액은 7919억 4800만 원이었다. 이 중 수소 '생산' 분야로 분류할 수 있는 예산은 992억 4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2.5%에 그쳤다.

▶관련기사 5면

국토부와 환경부는 부처 특성상 모든 예산을 유통·활용 분야에 할당했다. 과기부, 산업부, 해수부 등은 '생산' 분야에 일부 예산을 배정하긴 했지만, 그 비중은 작았다.

부처별로 보면 수소 관련 예산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한 곳은 환경부다. 환경부는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에 4415억 5300만 원을 배정했다. 전체 예산의 55%가 넘는 금액이다. 구체적으로는 '수소차 보급'에 3655억 원, '수소충전소 설치'에 744억 7000만 원 등을 배정했다.

국토부도 527억 5000만 원의 예산을 '고속도로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 '수소도시 지원' 등 수소 유통 및 활용에 전부 투자했다.

수소 생산 사업과 밀접한 산업부, 과기부마저 생산보다 수소 유통이나 활용 사업에 투자를 집중했다. 산업부가 생산 관련 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예산 2574억 5000만 원 중 824억 8000만 원이다. '수소생산

수소 투자 현황 (단위 : 원) ※2021년 기준

※출처 : 각 부처	생산	유통 및 활용
과기부 (총 286억 9000만 원)	131억 2000만	155억 7000만
국토부 (총 527억 5000만 원)	-	527억 5000만
산업부 (총 2574억 5000만 원)	824억 8000만	1749억 7000만
해수부 (총 115억 5000만 원)	36억 4000만	78억 6500만
환경부 (총 4415억 5300만 원)	-	4415억 5300만
총계	992억 4000만 (12.5%)	6927억 8000만 (87.5%)

기지 구축'에 666억 원의 예산을, '수소 생산 및 저장시스템 기술 연구·개발(R&D)'에 100억 5000만 원을 배정했다. 이에 비해 유통 및 활용 사업에는 생산의 2배가 넘는 1749억 7000만 원을 할당했다. 수소 생산에 주축이 돼야 하는 산업부가 수소연료전지, 수소 트럭 개발 등 생산된 수소를 활용하는 데 더 많은 예산을 쓴 것이다.

과기부 역시 생산보다 유통·활용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했다. 총예산 286억 9000만 원 중 생산 분야에 131억 2000만 원을, 유통 및 활용 분야에는 155억 7000만 원을 투자했다.

해수부는 해양미생물을 이용해 일산화탄소를 친환경 수소에너지로 전환하는 해양바이오수소를 상용화할 예정인데, 여기에 36억 40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하지만 이는 78억 6500만 원을 할당한 '수소선박 안전 기준개발'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이다솜 기자 citizen@

### 소소하지만 쓸모있는 앱들의 등장

- 비대면 폐기물 처리 서비스  
"시각 한번으로 쓰레기가 사라지는 마법"
- 현명한 육아용품 가이드  
"맞춤수원부터 가장 편한 장고까지"
- 신차구매 비교 견적 서비스  
"말씀없이 심리 싸게 사자"
- 헤어스타일 가상체험 어플  
"미용실에서 묻지 말고 이 앱으로 해킹"
- 인공지능 영상편집 어플  
"이 앱 하나면 구독과 10만 가능"
- 비대면 멘탈케어 어플  
"유리멘탈러들의 요즘 필수앱"

아이디어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시대로 -

# 세상을 바꾸는 기업들

X IBK 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은 1,500여 개의 혁신기업에 1조 5천억 원의 모험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트래블 버블’ 첫발... 항공산업 날개 펴나

### 싱가포르 관광객 20여 명 입국 PCR 검사받은 후 무격리 여행 인천공항 여객 실적 회복 기대

코로나19 이후 첫 외국인 관광객이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을 찾았다. 한국과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협정을 맺은 싱가포르 관광객이 15일 처음으로 입국한 것이다.

트래블 버블은 방역 관리에 대한 신뢰가 확보된 국가 간 상호 격리를 면제해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싱가포르 트래블 버블 여객의 한국 입국을 시작으로 침체된 항공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오전 8시 50분 KE646편으로 싱가포르 관광객 20여 명이 입국했다. 인천공항공사는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트래블 버블 개시



싱가포르 관광객과 언론 관계자 등이 15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한국-싱가포르 간 ‘트래블 버블’(여행안전권역)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백신 접종을 완료한 양국 국민은 격리 부담 없이 여행을 할 수 있다.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입국 여객 환영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에서는 인천공항 수문장 교대식을 진행하는 전통복장의 호위무사들과 한국 관광 캐릭터 킹덤 프렌

즈의 복장을 한 환영단이 싱가포르발 입국객을 맞이하며 입국 여객에게는 환영의 뜻으로 기념품과 꽃다발을 전달했다. 트래블 버블을 통해 입국한 여객들은 인

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은 후 숙소로 이동해 한국관광을 이어가게 된다.

공사는 지난해 12월 국내 공항 가운데 처음으로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에 코로나19 검사센터를 도입했다. 여객 편의 제고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는 제1 여객터미널에도 2개소를 추가 도입해 총 3곳의 검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공사는 또 코로나19로 침체된 항공 여객 수요의 조기 회복을 위해 인천공항 웰컴 백(Welcome Back) 프로모션을 시행한다. 프로모션은 11월 셋째 주부터 12월 둘째 주까지 트래블 버블 여객 환영 행사 △인천공항 이용 여객 대상 경품 추첨 △해외 여행사 초청 웨비나 △해외 인플루언서 초청 홍보영상 제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해 인천공항의 여객실적은 2019년 대비 90% 이상 감소했다.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싱가포르 트래블 버블 여객의 우리나라 입국을 시작으로 침체된 항공수요도 조금씩 회복되기를 희망한다”며 “국내외 여객분들이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인천공항의 방역 및 서비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말에는 싱가포르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한다.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싱가포르 관광객 18명은 전기차를 빌려 자가 운전으로 주요 관광지를 여행하며 안전 관광을 즐기는 자기주도 안심상품을 통해 25~29일 4박 5일간 제주를 여행한다. 이들은 지난해 2월 4일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제주지역 무사증(무비자) 입국제도가 중단된 이후 1년 9개월여 만에 제주를 찾는 첫 외국인 단체 여행객이다. 현재 제주와 싱가포르를 운행하는 직항노선이 없으므로 이들 단체여행객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국내선을 갈아타고 제주에 도착할 예정이다. **곽도훈 기자 soqood@**

## 확진자 절반이 ‘돌파감염’ ... 50대도 부스터샷

### 접종 일주일 뒤 효능 떨어져 추가접종 후 감염률 11.3배 ↓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80%에 달하지만 확진자의 절반이 ‘돌파감염’으로 나타나면서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안전 접종자와 요양병원시설 입원자에 이어 15일부터 50대 이상 연령층에도 추가 접종을 실시하면서 ‘부스터샷’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다.

15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말 다시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14일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는 4196만2629명으로 인구 대비 접종률은 81.7%다. 접종 완료자는 4010만2583명으로 접종률은 78.1%를 기록했다. 문제는 접종 완료자도 확진되는 이른바 ‘돌파 감염’

이다. 실제 지난달 17~30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은 만 18세 이상 1만7325명 중 완전 접종자는 48.1%(8336명)로 집계됐다.

돌파감염 비율은 고령층으로 갈수록 더 높아졌다. 18~29세에서는 확진자의 19.7%만이 돌파감염 사례로 확인됐지만, 70대에서는 84.4%, 60대 81.0%, 80세 이상 74.6%, 50대 60.2% 순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최신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의 접종 효능은 접종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예방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스라엘의 3만3993명 대상 화이자 백신 접종 사례에서 백신 접종 후 총 608명(1.8%)의 돌파감염이 발생했고, 백신 접종 후 146일 기준으로 187명(1.8%)에서 421명(2.4%)으로 백신 예방접종 후 경과 시간에 따라 돌파감염 발생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화이자 백신의 예방 효과는 전반적으로 2개월마다 6%포인트씩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모더나 백신 효능도 2차 접종 후 2개월~4개월에는 94%, 2차 접종 4개월 후에는 92.4%의 효능이 유지되지만, 델타 변이 발생에 따라서 효능에 변화가 발생했다.

정부는 1일부터 면역저하자, 8일부터 안전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추가접종에 나섰다. 15일부터는 기본 접종을 완료한 지 6개월이 지난 50대 연령층을 대상으로 ‘부스터샷’이 확대됐다. 18~49세 기저질환자와 우선접종 직업군도 이날부터 추가접종이 가능하다.

‘부스터샷’에 따른 효과도 확인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경우 추가접종 실시 후 효능을 보면 2차 접종그룹보다 추가접종 그룹에서 감염비율이 11.3배 낮아졌으며, 중증질환의 비율은 19.5배떨어져 추가 접종 효과 있음이 확인됐다. **남주현 기자 jooh@**

## 수도권 중증 병상 가동률 80% 육박

### 위드코로나 위험도 다음주 공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집중되는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약 80%에 육박하면서 병상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일상 회복을 멈추는 비상계획은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위험도 평가 기준은 18일 발표하고 다음 주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15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기준 수도권의 코로나19 중환자 전담병상은 전체 687개 중 162개가 사용 가능해 병상 가동률은 76.4%로 집계됐다. 전날 수도권 전담병상 가동률 74.2%에서 하루 동안 2.2%포인트가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78.6%(345개 중 271개 사용), 인천은 78.5%(79개 중 62개 사용), 경기도는 73.0%(263개 중 192개

사용)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을 ‘비상계획’ 발동 기준의 한 예로 ‘중환자실 가동률 75%’를 제시했고, 수도권은 이 기준치를 넘어선 것이다.

다만 방역당국은 병상 가동률 외에 다른 지표들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창준 중수본 환자병상관리반장은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중등중 병상 가동률이 거의 80% 내외 수준으로 높아졌다”며 “다만 비상계획(발동 기준)은 단순히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에만 국한하지 않고, 여러 지표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상계획과 별개로 단계적 일상회복의 단계 전환의 기준이 되는 일상회복 주간 위험도 관리지표는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방역 위험도를 확진자가 아니라 중환자 병상 여력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체계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 조류인플루엔자(AI)·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 「농장 4단계 소독」 요령

<b>1단계</b> 농장 진입로 생석회 도포	<b>2단계</b> 농장 내부 매일 청소·소독	<b>3단계</b>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b>4단계</b> 축사 내부 매일 소독
 <p>농장 진입로 폭 2m 이상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충분히 도포</p>	 <p>※ 소독약은 용법용량의 권장 희석배수 준수</p>	 <p>세척수-물(세척조)을 이용하여 신발(장화)에 붙은 유기물 제거 후 신발소독조 사용</p> <p>※ 신발소독조 소독약은 2~3일 간격 교체</p>	 <p>축사 청소·소독 순서</p> <p>① 청소·세척 천장→벽→바닥 순</p> <p>② 건조</p> <p>③ 소독약 살포 천장→벽→바닥 순</p>
- 1주일 간격 반복 도포, 비·눈 내린 후 즉시 재도포 - 도포된 생석회 위에 산성 소독제 살포 금지	- 농장 내부, 사료반·퇴비사·출하대 주변 매일 청소·소독 - 야생조류 유인 요소(사료·폐사·축왕겨 등) 방지 금지	- 지정된 관리자 외 축사 출입 최대한 통제 - 축사 출입시 손 소독, 방역복·위생장갑·전용장화 착용	- 사람·가축에 직접적인 소독제 분사 금지 - 가축과 직접 접촉하는 물품소독 철저 및 외부 반출 금지

# 음원 저작권, 시세조작 무방비 '제2 머지포인트' 우려

# 직장인 이모(28) 씨는 알트코인에 투자한 3000만 원을 환매해 가수 아이유에 대한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사고파는 투자자를 연결해 주는 '조각투자' 플랫폼을 통해서다. 거래가 체결되는 금액으로 시세가 정해지고, 언제든지 곡의 흥행성, 곡 자체의 특수성에 따라 시세가 변동될 경우 플랫폼에서 팔면 된다. 이 씨는 "올해 초 코인시장에 투자해 재미를 봤지만 최근 가격 변동이 심해져 피로감이 커졌다. 예금 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가수가 죽어도 저작권이라는 자산은 남아 있어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거래가 이 씨의 생각처럼 위험이 전혀 없는 투자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것은 편익상 저작권이라고 부르지만, 저작권 자체를 구매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이용자들은 저작권의 지분을 양도받는 게 아니라,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사고파는 것이다. 카카오 주식에 비유하면 카카오 주식을 사면 증권사가 망하든, 사라지든 카카오 주식의 보유자는 투자자 본인이다. 하지만 저작권 투자는 카카오 주식은 플랫폼이 갖고 배당을 받을 권리를 투자자에게 판 셈이다.

만약 뮤직카우가 파산한다면 구제를 받을 수 없다. 뮤직카우가 허가받지 않은 금융투자업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쪼개기 유통은 '시세조종'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늘 자리한다. 금융감독원도 또 다른 시장에서의 '머지포인트'로 전락할 수 있다고 보고, 뮤직카우를 들여다보고 있다.

◇시세조작 위험 노출, 파산뎀 짝박= 15일 이투데이가 뮤직카우에 대해 금융투자업계와 법률 전문가를 대상으로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뮤직카우의 운영 방식에는 불법적 요소가 다방면에 포진해 있다.

먼저 '시세조종' 우려가 제기된다. 뮤직카우 내 거래소가 주식 시장과 비슷하게 운영되는 만큼 임의적으로 시세조작이 가능하고 적절한 규제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뮤직카우는 한 곡당 저작권료 청구권을 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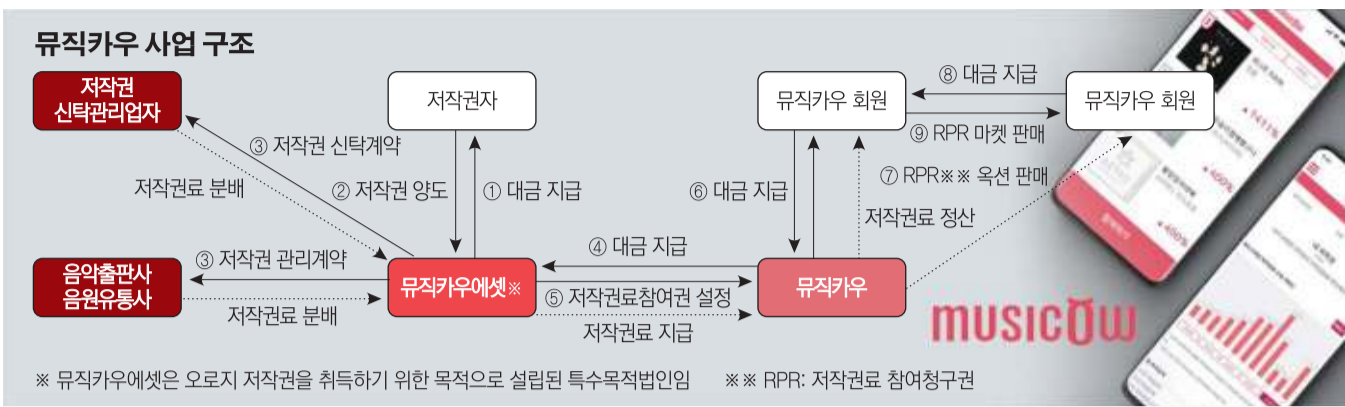
주식과 달리 '가격 제한폭' 없어 호가 기반 조직적 가격 부양 가능

금융투자업 미등록 제재 안 받아 폐업 땀 투자금 회수 못할 수도

5000조각으로 쪼개 주식시장과 비슷한 '주' 단위로 투자자들에게 유통하는 거래소를 운영 중이다. 매수자가 특정 매매가로 호가를 부르면 그 가격대 매도자와 거래가 성립하는 방식이다. 이때 조직적으로 호가를 높여 부르는 이른바 '고가매수'를 통해 가격을 부양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이 경우 투자자들은 해당 음악이 마치 잘 팔리는 음악인 것처럼 잘못 해석할 수 있으나, 뮤직카우는 금융투자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만큼 관련 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주식시장이 가격 급등락 시 주식 가격제한폭의 제한이 걸리는 것과 차이가 나는 지점이다. 거래소와 금융감독원 등의 제재에서도 피해갈 수 있다.

이수진 법무법인 정승 변호사는 "뮤직카우 마켓 내 거래되는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은 시세조종이 가능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부양시킬 수 있다"며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처벌받지 않고 이득만 취할 수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뮤직카우가 폐업할 경우 투자자들은 저작권료를 1원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자회



사 뮤직카우 에셋과 음악저작권협회 사이에 작성된 서약서에 따르면 회사의 파산 또는 폐업 시당사 전 관리 약곡의 저작권 계약은 아무 절차 없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된다.

뮤직카우는 홈페이지 '유저가이드(FAQ)'에서 자회사 '뮤직카우에셋'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별도로 운용, 안전하게 관리한다고 안내 중이다. 이용자 약관에서는 회사에 대한 회생 절차 또는 파산선고로 인해 회사가 본 약관상 회원에 대한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대한 지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저작권 신탁자가 해당 채무를 연대하여 이행하

거나 인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뮤직카우와 뮤직카우에셋이 저작권료 청구권을 매개로 운영되는 한몫인 만큼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쪽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파산으로 인해 뮤직카우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뮤직카우가 양도받은 저작권이 해지될 경우 운영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법조계, 자본시장법 위반 등 거론= 법조계는 법률 위반 소지가 다수 발견된다고 지적한다. 이투데이 취재 결과,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 공통적으로 거론된다. 뮤직카우가 금융투자상품을 운영한다

고 판명될 경우 자본시장법상 무인이 집행 투자업 및 투자중개업 위반 가능성이 있다. 9월 수만 명의 피해를 양산한 '머지포인트 사태'도 미등록 영입이 문제였다. 금융위원회로부터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않아 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위반도 제기된다.

뮤직카우가 홈페이지에 연 8.7%의 이자를 보장하는 듯한 내용을 담고 연 8%의 수익률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홍보한 점도 문제다.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초과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는 것과 유사한 광고인 만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 정성욱 기자 sajikoku@

## K팝 올라탄 '음원 저작권' MZ세대 새 투자처로 부상

OTT·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등 저작권 소비채널 크게 늘어나 거래 플랫폼·펀드 통한 투자 확산

올해 대박을 터트린 대중가요 중 하나가 걸그룹 브레이브 걸스의 '롤린'이다. 하지만 이 곡을 작사·작곡한 용감한 형제(강동철)는 저작권료를 받지 못한다. '롤린'이 대박이 날 줄 모르고 저작권을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에 100% 양도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2만3500원이었던 롤린의 15일 현재가는 62만600원. 2000년 발매된 god의 '하늘색 풍선' 가격도 레트로 열풍에 연초보다 두 배가량 뛰었다.

'음원 조각투자(저작권)'가 MZ세대 사이에 새로운 투자처가 됐다. 방탄소년단(BTS) 등을 앞세운 K팝 시장이 커진 것도 있지만, 과거 세대와 같은 방식으로는 자산을 불리는 게 어렵다는 판단이 자리하고 있다.

15일 한화투자증권에 따르면 2020년 저작권료 분배액은 약 2488억 원으로 추산된다. 2019년 대비 16.5% 늘어난 것이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상승률도 15%에 달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골드 러시(금광)"라고 표현할 정도로 시장이 커지고 있다.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동영상, OTT 플랫폼 등 저작권 소비채널이 늘고 있고, 음악 저작권 권리 강화 및 징수규정 개선 등이 이

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 관리를 행사하기 위한 저작물 가입자 수도 늘고 있다.

황현준 DB금융투자 연구원은 "MZ세대를 중심으로 투자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면서 "젊은 세대들이 과거 세대와 같은 방식으로는 자산을 이루기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한 데 따른 것이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은 70년 동안 유지될 뿐 아니라, 역주행·리메이크 등으로 높은 수익률도 기대할 수 있다. 작곡·작사가로서는 당장 수익이 나지 않는 곡들의 저작권을 매매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개인들은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까. 국내에서 음악 저작권에 투자하는 방법은 논란이 된 거래 플랫폼 '뮤직 카우'를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펀드를 통한 투자도 있다.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피네이션이 음악 저작권 투자를 위한 운용사를 설립하며 300억 원의 신규 펀드를 조성했고, 개인간 저작권 거래 플랫폼을 구축한 뮤직카우는 저작권 확보를 늘리며 200억 원의 추가 펀드를 조성했다.

해외에서는 펀드 형태로 음악 저작권 투자가 이뤄진다. 가장 유명한 곳은 2018년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저스틴 비버, 리애나 곡 등 5만7000여 곡 판권을 보유한 '힙노시스 송스'다. 미국 기반의 '라운드힐 뮤직 로열티 펀드'도 비틀스, 셀린 디옹 등의 저작권 12만 곡을 보유하고 있다.

정성욱 기자 sajikoku@

인생맞춤, 인생보험

내 인생을 책임질 보험, 한눈에 정리하다

삼성생명 인생맞춤보장설계

가입건수: 삼성생명 5건, 타보험사 3건

주요보장별 가입현황 그래프

고액년의 보장안내가 도착했습니다

삼성생명 및 타보험사 보장내용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가입현황

올바른 시간, 올바른 수단, 신속한 서비스, 확실한 금액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삼성생명의 컨설턴트와 함께 인생맞춤보장설계를 받아보세요!

- 모바일로 빠르게**  
카카오톡 알림과 문자로 나만의 보장내역을 빠르게 확인
- 한번에 편하게**  
보험사와 관계없이 내가 가입한 모든 보장을 한번에 확인
- 믿으니까 든든하게**  
삼성생명의 전문 컨설턴트가 나에게 꼭 맞는 보장설계 컨설팅까지!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삼성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계약 체결 전에 충분히 설명을 받으신 후에 가입을 결정해야 합니다. \* 예금·저축·보험·투자상품 등 이 보험계약은 예금·보험·투자상품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증하며,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험·투자상품에 대한 합계금액은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상금에 가입자금액을 합하여 '인정 최고액'인 5천만원에 초과하는 내역이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예금·저축·보험·투자상품 등 이 보험계약은 예금·저축·보험·투자상품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증하지 않습니다. \* 호기증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 새로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고, 피보험자의 나이 증가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체결의 거부 또는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시려는 충분한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삼성생명

<GDP 대비>

# 韓 가계빚 최대·증가속도 1위... 경제 발목잡나

### 국제금융협회 37개 국가 조사 GDP 대비 부채 비율 104.2% 1년 새 6%P 늘어 증가폭 최고 기업 부채 비율도 115%로 5위

우리나라의 가계 빚이 국가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세계 약 40개 주요국(유로 지역은 단일 통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가계 빚 증가 속도도 가장 빨랐다.

15일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Global Debt)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세계 37개 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104.2%로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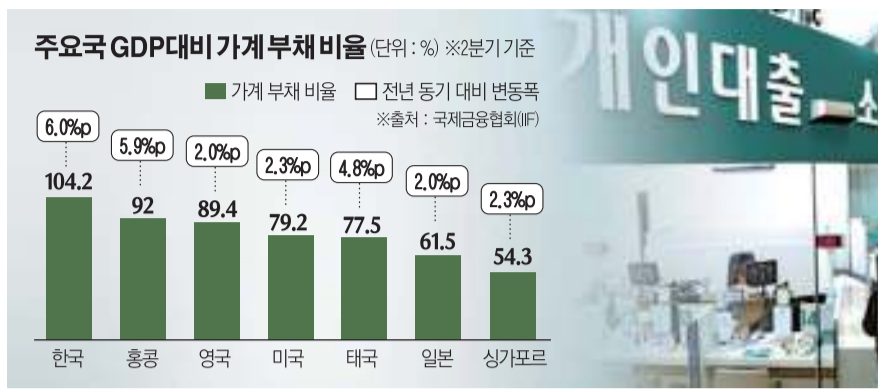
이어 홍콩(92.0%), 영국(89.4%), 미국(79.2%), 태국(77.5%), 말레이시아

(73.4%), 일본(63.9%), 유럽연합(61.5%), 중국(60.5%), 싱가포르(54.3%) 등이 뒤를 이었다. 가계 부채 규모가 경제 규모(GDP)를 웃도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한국의 가계 부채 비율(104.2%)은 작년 2분기(98.2%)와 비교해 1년 새 6.0%포인트(P)나 높아졌는데, 이런 증가폭도 다른 모든 나라를 웃돌았다. 이어 홍콩 5.9%P(86.1→92.0%), 태국 4.8%P(72.7→77.5%), 러시아 2.9%P(20.4→23.3%) 등의 순이었다.

IIF는 보고서에서 "주택 가격 상승과 함께 글로벌 가계 부채가 올해 상반기에만 1조 5000억 달러 늘었다"며 "이 기간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거의 3분의 1에서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높아졌는데, 특히 한국, 러시아 등에서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경제 규모를 고려한 우리나라 기업의 부채 비율이나 증가 속도도 최상위를 기록했



다. GDP 대비 한국 비금융기업의 부채 비율은 2분기 현재 115.0%로 홍콩(247.0%), 중국(157.6%), 싱가포르(139.3%), 베트남(125.0%)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았다. 기업의 부채 비율은 1년 사이 7.1%P(107.9→115.0%) 뛰었는데, 우리나라 기업보다 상승폭이 큰 나라는 싱가포르(7.6%P), 사우디아라비아(7.4%P) 정도에 불과했다.

반면 정부 부문 부채의 GDP 대비 비율(47.1%)은 전체 37개국 가운데 26위를 기록하면서 정부의 재정 건전성은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다. 1년간 정부 부채 비율 증가 속도도 2.2%P(44.9→47.1%)로 22위를 기록하며 중위권에 위치했다.

최근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재정·통화·금융정책으로 시장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가계 부채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가계 부채가 급증하면 향후 금리 인상에 따라 취약 계층의 채무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고, 나아가 경제성장을 하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최근 민간신용은 장기 추세 대비 18.5%P 증가했는데,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추세치 대비 증가폭이 10%P 이상이면 신용위기 가능성 측면에서 '경보' 수준"이라며 "금융당국의 가계신용 위험을 낮추기 위한 노력은 금융 건전성 제고의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가 최근 실제 증가율에 비해 크게 낮고, 총량규제 시행이 사전에 충분히 소용되지 않아 일부 수요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단기간에 가계부채 총량을 급격하게 줄이기는 중장기 부채관리 계획에 따라 점진적으로 꾸준히 줄여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정대만 기자 vishalist@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한국과 일본 양국의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연금수령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한국의 연금 수령액(개인 가구 기준)은 월 82만8000원으로 일본(164만4000원)의 50.4% 수준이었다고 15일 밝혔다. 부부 가구도 한국의 월평균 합산 수령액은 138만4000원으로 일본(272만6000원)의 50.8% 수준이다.

한국의 노인 소득대책은 일본과 비교하면 미흡한 실정이다. 국내 65세 고령층 중 공적연금을 받는 비율은 83.9%, 사적연금 수령 비율은 21.8%였다. 이는 각각 95.1%, 34.8%인 일본과 비교하면 10%포인트(p) 이상 낮다.

## “고령층 연금수령액 82만8000원, 日의 절반”

한국의 공적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개인 가구 66만9000원, 부부 가구 118만7000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일본은 공적연금 월평균 수급액이 개인 135만3000원, 부부 226만8000원으로 한국보다 약 2배 많았다.

한정연은 "한국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일본의 후생연금 요율이 소득의 18.3%로 한국(9.0%)보다 2배 정도 높다"며 "일본은 한국보다 '더 내고 더 받는' 공적연금 체계가 구축돼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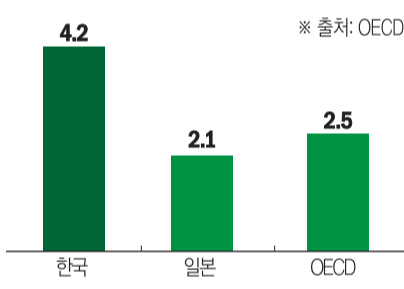
한국은 사적연금 시스템도 취약하다. 한국의 사적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개인 가구 15만9000원, 부부 가구 19만7000

### 한정연 “노인빈곤 심각”

日 후생연금 요율 18.3%

한국보다 더 내고 더 받아

최근 10년 간 고령인구 증가율 (단위: %, 2010~2020년 65세 이상 인구 기준)



원으로 개인이 29만1000원, 부부가 45만8000원을 받는 일본의 절반 수준이다.

한정연은 한국의 사적연금 수령액이 일본보다 부족한 것에 대해 한국의 사적연금에 대한 유인이 부족해 가입률이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한국은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율이 19.7%로 일본(31.0%)은 물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26.9%보다 낮다. 그 결과 15~64세 인구 중 사적연금 가입비율도 24.0%다. 절반 이상이 사적연금에 가입한 일본(50.8%)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층은 개인 기준

월 172만5000원, 부부 기준 월 255만5000원을 적정 생활비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연금 수급액이 적정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연금 생활비 대체율은 개인 가구가 48.0%, 부부 가구가 54.2%다. 반면,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층의 적정 생활비 수준은 개인 243만5000원, 부부 325만6000원으로 조사됐다. 일본 고령층의 연금 생활비 대체율은 개인 가구가 67.5%, 부부 가구가 83.7%로 적정 생활비의 대부분을 연금 소득을 통해 조달했다. 추광호 한정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고, 연금소득은 부족해 노인빈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공적·사적 연금의 노후 생활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배리 기자 kimstar1215@

## “10년 후 위성 170기 개발·발사체 40회 발사”

### 3.7조 투입 '우주 비즈니스 시대' 김부겸 "우주산업 생태계 만들 것"

우리나라가 2031년까지 공공목적의 위성 170여기를 개발하고, 위성개발과 연계해 국내 발사체 40여 회 발사를 추진한다.

15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열린 제21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주산업 육성 추진 전략,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사업 추진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국가우주위는 '10년 뒤 우주 비즈니스 시대를 연다'는 목표에 우주개발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는 국가우주위원회가 우주산업뿐만 아니라 안보 분야까지 포괄하는 국가컨트롤타워로 격상된 후 첫 번째 회의다.

국가우주위원장을 맡은 김부겸 국무총리는 "기업이 마음 놓고 우주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우주기업을 키우고, 강한 자생력을 갖춘 우주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우리의 다음 목적으로 설정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우주위는 민간기업의 다양한 아이디어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나로우주센터 내에 민간기업 전용 발사체 발사장을 구축하며 우주산업 거점으로서 발사체, 위성, 소재·부품 등의 우주산업 클러스터도 조성한다. 기업이 기술경쟁력을 확보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계약방식을 도입하고, 기술료 감면·지체상금 완화로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위성정보산업 관련 신산업도 육성한다. 스마트폰,



김부겸(오른쪽)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대전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열린 제21회 국가우주위원회 시작에 앞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율차 등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연관산업을 발굴하고, 6G 위성통신기술 및 서비스를 실증해 민간이 상용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인프라로서 조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사업을 내년부터 2035년까지 진행한다. KPS는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사상 최대 규모 사업으로 14년간 총 3조7234억5000만 원을 투입해 위성항법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위성·지상·사용자 시스템을 개발·구축한다. KPS가 구축되면 유사시에도 금융·전력·통신·교통망 등 주요 국가기반 인프라의 안정성이 확보되며, cm급 조정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4차 산업혁명 신산업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세종=박병기 기자 riby@

## 책 빌려주는 자율주행 도서관로봇 나온다

###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4건 승인 수소전기트럭도 물류 현장 투입

자율주행 로봇이 공원을 돌며 시민들에게 책을 빌려주는 스마트도서관 로봇이 국내에서 처음 출시된다. 수소전기트럭도 물류 현장에 투입되고, 신재생에너지와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소가 추가로 문을 연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자율주행 스마트도서관 로봇(성남시청) △수소전기트럭 물류서비스(쿠팡로지스틱스 서비스) △신재생에너지와 사용 후 배터리 활용 전기차충전 서비스(대은) △자동차 OTA 서비스(타타대우상용차) 등 4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도서관 로봇은 장애물을 감지하는 라이다 센서, 위성항법 자율주행 알고리즘 등을 탑재해 자율주행한다. 책 100권을 싣고 탄산산재로(탄천교, 사송교, 야탑교) 지점별로 일정 시간 머물며 시민들에게 도서를 대출한다. 성남시 공공도서관에서 발급받은 회원증만 있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현행법상 자율주행 로봇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돼 보도나 건물목을 달릴 수 없다. 또 중량 30kg 미만의 동력장치만 공인 통행이 가능하다.

심의회는 "실내의 자율주행 로봇의 기술적 토대가 구축됐고, 유사한 로봇들이 현재까지 별다른 안전사고 없이 실증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며 안전사고와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전제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친환경 수소전기트럭을 활용한 물류서비스도 추



15일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성남시청 '자율주행 스마트도서관 로봇'. 대한상의 제공

가 승인했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현대자동차가 제작한 10톤(t)급 수소전기트럭(엑시언트)을 1대 구매해 화물 운송에 활용한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차 운송사업의 증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소도 추가로 문을 연다. 대은은 태양광발전설비로 직접 생산한 전력을 한전의 송배전망을 거치지 않고 전기차충전소로 직접 보내 충전한다. 잉여전력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한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하여 필요한 시간대에 충전 전력을 제공한다. 실증지역은 제주도다. 현행법상 자가용 전기설비 생산전력은 전기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없고, 판매사업자(한국전력)와 거래만 가능하다.

김배리 기자 kimstar1215@

# 수소생산 걸음마단계... M&A 통한 안정적 공급망 추진

## 정부 '예산 편중' 원인·대책

국내 인프라로는 '생산 한계' 사용량의 80% 수입에 의존

현대차·SK 대규모 투자 집행 자체 생산·해외 협업 등 모색

정부가 수소 밸류체인 중 유독 '활용'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생산' 분야에서는 여러 요건상 불리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소는 에너지 산업인 만큼 생산부터 활용까지 파생되는 사업이 무궁무진하다. 전체적인 시장 규모도 막대하다. 수소위원회와 글로벌 자문사 맥켄지가 최근 발간한 '수소 인사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 세계 수소 사업 투자 규모는 5000억 달러(약 57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수소 사업의 밸류체인은 크게 생산, 유통, 활용 등으로 나뉜다. 이 중에서 핵심은 '생산' 분야다. 현재 가장 주된 에너지원인 석유 산업을 봐도 그렇다. 아무리 유통, 활용 인프라가 탄탄하더라도 원유 생산국의 뭉니 한 번에 석유 생태계 전체가 휘청이는 사례가 수없이 반복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현실적으로 수소 생산에서 우위를 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수소는 크게 세 종류로 나뉜다. 그레이 수소는 천연가스나 석탄 등에서 수소를 뽑아내거나,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가스를 수소로 바꿔 만든다. 블루 수소는 포집·활용·저장 기술을 이용해 그레이 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최소

그룹	분야	액수
SK	액화플랜트 구축 연료전지발전	18.5
현대차	수소차 설비투자 유통 인프라 투자	11.1
포스코	부생수소 생산 수소환원제철 개발	10
한화	그린수소 연구개발 수소 저장설비 구축	1.3
효성	액화플랜트 구축 액화충전소 보급	1.2

\* 출처: 각 사

화한 것을 말한다. 그린 수소는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 에너지로 만든 전기로 물을 분해해 만든다. 진정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서의 수소는 그린 수소를 의미한다.

현재 국내에서 만드는 수소 대부분은 그레이 수소다. 더구나 국내 지리적 여건상 재생에너지 사업의 확장성에도 한계가 명확해 그린 수소로 전환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작년 기준 7.2%였다. 독일(46.7%), 영국(44.9%), 일본(21.6%), 미국(20.7%)보다 한참 낮은 수준이다. 그린 수소 생산을 위해 원자력발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도 2050년 국내 수소 수요는 약 3000만 톤이지만, 이 중 20%만을 국내에서 생산한 수소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나머지 80%는 해외에서 들여와야

분야	한국	일본	중국	독일	미국
수소생산	62.5	96.7	63.3	97.5	100
수소저장	85.8	98.3	66.7	92.5	100
수소운송	78	100	67	94	100
수소충전	71.5	101.3	64.4	99.7	100
수소모빌리티	94	103	75	95	100
수소연료전지	91.5	102.1	68.1	90.3	100

\* 출처: 한국산업연구원

하는 실정이다.

이에 비해 수소 활용 분야에서는 강점이 있다. 한국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일본, 중국, 독일 등 주요국들의 분야별 수소 기술 수준 비교에서 한국은 수소 생산 분야에서 꼴찌였지만 수소저장과 운송, 충전 등 인프라 관련 분야에서는 3위였다. 수소 모빌리티는 독일에 1점 차이로 밀려 3위, 연료전지는 2위였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연료전지 기술은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다음으로 높다. 특히,

수소차 판매와 발전용 연료전지 보급에서는 2년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했다.

현대차, SK, 한화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은 밸류체인 전반을 아우르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잇달아 발표, 집행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수소 전기차(FCEV)와 수소 연료전지를 생산 중이다. 수소 연료전지를 직접 개발해 차량과 트럭, 선박, 도심항공교통(UAM)까지 확대하고 있다. SK그룹은 지난해 말 수소 사업 전담조직인 '수소사업추진단'을 신설하고 2025년

까지 수소 생산·유통·소비에 이르는 밸류체인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화그룹은 한화솔루션의 태양광 발전을 바탕으로 한 그린수소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화솔루션은 수소 압축과 저장 분야까지 확대하고 있다. 효성그룹도 수소의 생산부터 공급에 이르는 밸류체인에 투자하고 있다. 두산그룹은 최근 계열사들의 전문인력을 모아 ㈜두산에 수소 TF팀을 구성했다. 롯데케미칼은 최근 친환경 수소 성장 로드맵을 설정하고 이 사업에 2030년까지 약 4조4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생산 분야에서는 자체적인 기술 확보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과의 협업,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수소 공급을 국내에서 모두 충당할 수 없어 중장기적으로 해외 수소 공급업체들과 긴밀한 협력을 쌓아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일례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은 호주나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발주한 블루·그린 수소 프로젝트에 일찌감치 참여했다.

김버리 기자 kimstar1215@

## 인터뷰 이종배 국회수소경제포럼 공동대표

### “그린수소 기술 격차 갈수록 벌어져 정부, 적극투자로 균형발전 피해야”

“수소 사회 현실화를 위해서는 수소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균형 있는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의원인 이종배(사진) 수소경제포럼 공동대표는 15일 이투데이와 서면으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수소 관련 예산이 유통·활용 등에 편중됐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그린수소, 블루수소 등과 같은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기술개발은 아직 초기 단계”라며 “그 대신 수소모빌리티, 수소연료전지 및 발전 분야를 중심으로 한 활용 분야를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원인을 설명했다.

실제로 수소 생산 기술 측면에서 한국은 미국, 독일, 중국 등 주요국들과의 격차가 크다. 활용 영역에서도 모빌리티나 연료전지 정도를 제외하고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는 “수소 사회 현실화를 위해서는 어느 한 분야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수소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균형 있는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며 “사회 전반에 걸친 수소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선결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수소 관련 투자 예산을 수립할 때도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이 대표는 말했다. 그는 “수소 에너지 인프라 확충과 상용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생산, 운송, 저장 영역에서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강점으로 꼽히는 수소자동차와 연료전지 분야의 초격차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의 지원을 유지하되, 수소 생태계 전 주



기에 걸쳐 빈틈없이 예산 편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수소 사회 실현을 위해 수소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도 주요 과제라고 강조했다. 수소는 폭발 범위나 규모가 큰 ‘위험 물질’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면 수소 사회 진입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수소 안전성에 대한 홍보 등을 강화해 수소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유도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해서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은 국회수소경제포럼에서는 수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과 소통하고 있다. 국회수소경제포럼은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정책적 제언과 연구개발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과 투자를 적절히 집행해 수소 기술의 선제적인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이 대표는 “수소 경제로의 전환은 단순히 에너지원을 바꾸는 차원이 아니라 모든 일상에서 수소를 활용하도록 바꾸는 생활 혁신인 만큼, 정부뿐 아니라 기업,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다솜 기자 citizen@



우리의 도전은 세상의 기록이 되고  
우리의 기록은 세상의 역사가 된다

Global Battery Leader

LG 에너지솔루션

# 축구장 4개 크기 '바다 위 LNG 공장' 건조

## 요소수 수입처 다변화 동남아·중동 5곳 후보

### 삼성중 FLNG '코랄술' 명명식

삼성중공업이 모잠비크 해상에 투입될 초대형 부유식 액화천연가스플랜트(FLNG) '코랄 술(Coral Sul)'을 성공적으로 건조했다.

삼성중공업은 15일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필리프 누지 모잠비크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FLNG 명명식을 열었다.

FLNG는 해상에서 천연가스를 채굴하고 액화·저장·하역까지 할 수 있는 바다 위 LNG 플랜트를 말한다. 육상플랜트보다 투자비가 적고 환경친화적이며 이동이 용이하다. '코랄 술'은 16일 모잠비크로 떠난다.

'코랄 술'은 삼성중공업이 프랑스 테크닉, 일본 JGC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2017년 6월 이탈리아 에너지기업 ENI로부터 수주한 해양플랜트다. 삼성중공업은 선체 설계에서 시운전까지 전 공정과 톱사이드 생산설계, 제작을 담당했다. 삼성이 수행한 금액만 25억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공사였다.

'코랄 술'은 총 중량 21만 톤, 길이 432m 폭 66m로 축구장 4개를 직렬로 배열할 수 있는 크기이며 △가스 분출 저감을 위한 저(低)탄소 배출 기술이 적용된 가스터빈 발전기 △폐열회수시스템 등 친환경 기술이 적용됐다.

출항 명명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LNG(액화천연가스)는 석탄·석유에너지를 대체할 훌륭한 에너지원"이라며 "세계가 탄소중립으로 가는 여정에 코랄 술

LNG '채굴·액화·저장' 동시 수행 아프리카 모잠비크 가스전으로 출항

FLNG가 생산할 LNG가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축구장 4개 규모의 거대한 코랄 술 FLNG는 내일 인도양으로 출항해 모잠비크 4광구에서 활약하게 될 것"이라며 "모잠비크 해상 가스전은 세계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생산이 본격화하면 모잠비크 경제는 연평균 10% 이상 고도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인프라, 제조업의 동반성장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세계 최고의 조선강국이다. 세계 선박 시장에서 1위의 수주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특히 대형 컨테이너선, 초대형 원유운반선 등 친환경 고부가가치 선박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초, 최대는 물론 전 세계 FLNG 네 척 모두를 한국이 건조했다"며 "한국은 친환경 선박 핵심기술을 고도화하고 무탄소, 스마트 선박도 개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코랄 FLNG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완벽한 품질은 물론, 계약 납기를 준수해 우수한 EPC 건조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향후 범용 FLNG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 시장 우위를 선점해 나갈 계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필리프 누지 모잠비크 대통령 내외가 15일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에서 열린 부유식 해양 LNG 액화 플랜트(FLNG)선 '코랄 술'(Coral-Sul)호 명명식에 참석했다. 코랄 술호는 전 세계 4번째로 건조된 FLNG선으로 16일 아프리카 모잠비크 해상 가스전을 향해 출항한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필리프 누지 모잠비크 대통령 내외가 15일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에서 열린 부유식 해양 LNG 액화 플랜트(FLNG)선 '코랄 술'(Coral-Sul)호 명명식에 참석했다. 코랄 술호는 전 세계 4번째로 건조된 FLNG선으로 16일 아프리카 모잠비크 해상 가스전을 향해 출항한다. 연합뉴스

삼성중공업은 현재까지 3척의 FLNG를, 대우조선해양이 1척을 건조하는 등 현재까지 전 세계의 대형 FLNG 4척을 모두 한국이 건조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정일환 기자 whan@·곽진산 기자 jinsan@

### 기업결합 간이심사 대상에 부동산 투자도 포함

앞으로 기업결합 간이심사 대상에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의 투자 활동 등도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일반 심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기업결합 간이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이달 30일까지 행

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간이심사를 하고 있다. 간이심사는 일반심사와 달리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만 심사하고, 신고 서류 접수 후 1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는 방식이다.

기업결합당사자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

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결합으로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 경영 목적이 아닌 단순 투자라는 점이 명백한 경우 등이 간이심사 대상이다. 개정안은 간이심사 대상에 리츠가 부동산 취득 등을 위해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를 추가하도록 했다. 또 피취득 회사가 외국 회사이고,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주식 취득, 합병, 임원겸임, 영업양수도 등 다른 결합 유형도 심사 대상에 포함했다. 현재는 회사 설립에 참여하는 경

우만 간이심사를 받을 수 있었다.

이번 심사 기준 개정은 공정위의 심사 인력이 한정된 상황에서 심사 건수가 늘면서 가격 인상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일반 기업 결합 심사 건에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간이 심사가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 대상을 늘리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한다"고 말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 100개 거점 주유소 재고 인터넷 공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요소·요소수) 중장기적 수입처 다변화를 위해 동남아시아 3개국, 중동 2개국을 후보 대상 국가로 우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 장관은 차량용 요소수를 생산하는 울산 롯데정밀화학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업계와 협의를 거쳐 2~3개국을 최종 결정해 정부 간 협력의 틀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제3국에서 도입 시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구매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중장기적으로 국내 생산기반 마련 등 요소·요소수 공급망 안정을 위한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요소 외 잠재적 공급망 위험 품목을 추가 선정하는 등 기존의 공급망 관리체계를 개편해 보다 면밀하고 선제적인 수급 관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민·관이 함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노력한 결과, 중국으로부터의 요소 총 1만8700톤 수입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중국 외 베트남, 사우디, 러시아 등으로부터 확보한 요소 3만9000톤(차량용 1만4000톤), 요소수 800만 l의 신속한 국내 도입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 수요의 약 50%를 생산(1위)하는 롯데정밀화학은 차량용 요소 총 1만8900톤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생산라인 가동률을 높여 차량용 요소수를 신속히 생산·공급할 계획이다. 정경문 롯데정밀화학 대표이사는 "요소 수급 상황 개선을 위해 초기부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한 결과, 국내 차량용 요소수 수요의 2~3개월분에 해당하는 요소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내일부터 전국 100개 거점 주유소의 요소수 재고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했다. 현재 공공 목적용 20만 l를 제외한 180만 l를 100개 거점 주유소에 순차적으로 공급 중이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시니어 품격을 위한 매거진

#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11월호 발매



COVER STORY

## 마음은 늘 산을 향한다

- PART 1. 만산홍엽(滿山紅葉), 가을 산이 부른다
- PART 2.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즐기는 산스장 라이프
- PART 3. 산 따라 흐르는 고찰의 향기 지리산 3대 사찰을 만나다
- PART 4. 북한산 안전 책임, "37년 경험 믿어주세요"

## 신라보가 만난 사랑



소설가 김성동 이젠 소설 쓸 엄두가 나지 않는다



생활 속 법률 상식  
보험 재설계와 상속세로 보는 종신보험  
구해직 부동산  
주말농장과 농막으로 즐기는 듀얼라이프

느린 여행

## 시나미 명주, 고도(古都)의 매력 강릉 속으로



전통 정원의 멋 전남 화순 임대정 원림



1세대 유품정리사 김석중 "치우는 것 아닌, 고인의 빈자리 채우는 것이 우리 일"

참 좋은 시절  
고영희 성창특허법률사무소 대표

현장 기사·기술사·변리사 3사가 꽃피운 인생 3막

감성 예술! 미술관 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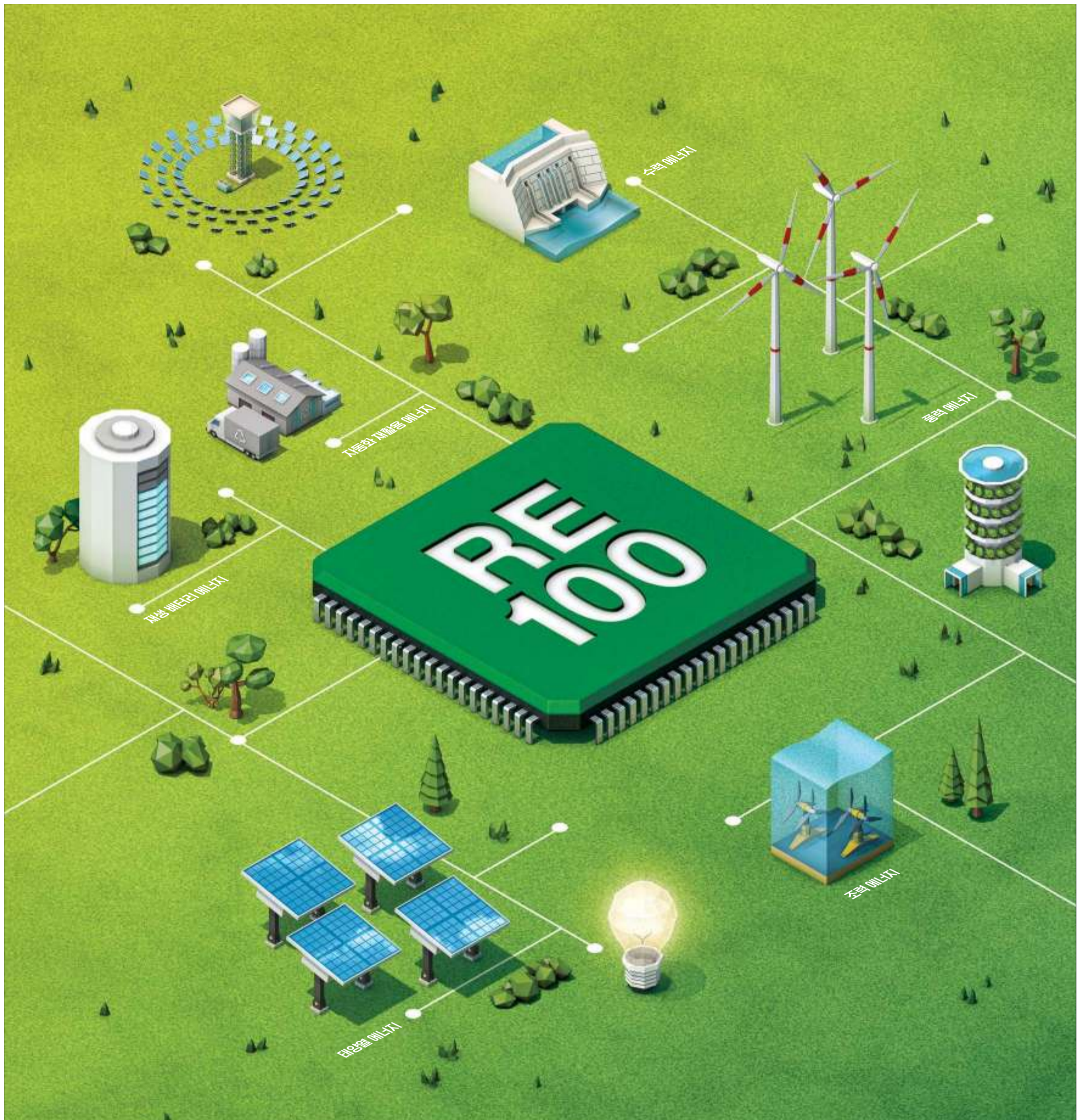
## 전통 회화의 마지막 보루, 또는 도인이 지나간 자리



습기로 온 투자생활

## 복잡한 금융투자 세금을 한 방에 정리하기





# 반도체를 넘어 환경을 고민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RE100 가입을 통해 환경문제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만으로 조달하는 친환경적인 노력으로  
 ESG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 RE100은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겠다는 목표의 국제 캠페인



‘킹메이커’의 출판기념회 윤석열(왼쪽 세 번째)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김종인’ 출판기념회에서 김 전 비대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윤 후보, 김 전 비대위원장, 금태섭 전 의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국회사진취재단

### “복지에 블록체인 도입”

송영길 “투명성 향상 고민해야”

15일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발대식에서 송영길 대표는 복지 전달체계에 블록체인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대표는 “복지 사각지대와 누수를 보완하고 전달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블록체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며 “사회복지 시스템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어떻게 업그레이드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블록체인 도입이 거론된 사안으로는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안한 부동산 개발 이익 가상자산 지급이 있다. 이 후보는 8일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부동산 개발 불로소득 국가 환수를 위해 국회에서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있는데 완벽하지 못해서, 블록체인 기반 전 국민 개발이익 공유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 핵심관계자는 본지 기자와 통화에서 “송 대표가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여러 전문가와 함께 구체화하고 있다. 복지 전달체계 블록체인 도입은 그에 따른 발안”이라며 “연장선 상에 있는 게 최근에 송 대표가 이 후보에게 제안한 개발이익을 이에 연동된 가상자산으로 환원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개발이익 변동성까지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에 담아내 환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논의가 진행 중이라 아직 아이디어 차원이라는 게 당의 전언이다.

사회복지특위 위원장을 맡은 고민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서 잘 됐던 정책들을 도약시킬 의견 모아주면 정책으로 연결하고 이재명 후보가 만드는 민주 정부 4기에서 적용되도록 하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uknow@

## 김종인에 달려간尹 “국가 대개조 역할할 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컨벤션 효과를 통한 지지율 상승을 이어가기 위한 행보에 돌입했다. 윤 후보는 선대위 구성 마무리를 위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에게 구애를 보냈다. 현 정권을 향해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우리 김 전 위원장이 역할을 하셔야 할 때가 다가오지 않았나 싶다”며 김 전 위원장을 향한 구애에 나섰다. 이어 “정권교체와 국가 개혁의 대장정을 벌여 나가는 이 시점에서 그동안 쌓아 오셨던 경륜으로 저희를 잘 좀 지도해 주시고 잘 이끌어 주시길 부탁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윤 후보가 구애에 나선 이유는 최근 선대위 구성을 놓고 당 안팎에서 잡음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후보 확정 후 지지율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윤 후보로서는 선대위 구성 등으로 괜한 잡음을 만들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이날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12~13일, 유권자 1009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도 윤 후보는 다자 대결에서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2.6%p 상승한 45.6%로 나타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격차는 13.2%p다.

윤 후보의 구애에 김 전 위원장은 “그렇게 계기가 있으면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면서 선대위 출범 시점에 대해 “선대위를 구성하는 후보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지 제3자가 뭐라고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총괄선대위원장과 관련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내가 처음부터 안 했다”며 “뭐가 짜이면 그때 가서 판단하는 거지 미리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후보는 김 전 위원장을 향한 구애는 물론 문재인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그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 정부는 돈 뿌리기를 그만하고 물가 대책에 주력하시라”며 “문 정부의 실정은 서민의 삶을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윤 후보는 이철희 청와대 정부수석 을 통해 문 대통령의 축하 난을 전달받았다. 이 후보는 이 수석과 가진 접견에서 엄정한 선거 중립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양수 윤 후보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윤 후보가) 선거에 대한 엄정중립을 요청했고 대통령께서도 선거에 대해 엄정중립을 지키겠다고 말씀을 다시 한번 했다”고 밝혔다. 박준상 기자 jooon@

### 이재명) 李 “전국민 지원금 당대당 협의하자”

“내년 미루지 말고 올해 하자”尹 소상공인 지원안에 역제안 “대장동 특검 조건 안 붙인다”

추측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당장 양당 지도부가 나서 당 대당 논의를 시작하면 좋겠다. 25조 원과 50조 원을 한 테이블에 올려 놓고 협의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을 위한 ‘기본소득 토지세’ 필요성도 강조했다.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확보한 세수 전액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토지 보유 상위 10% 안에 못 들면서 손해 볼까 기본소득 토지세를 반대하는 것은 악성 언론과 부패정치 세력에 놀아나는 바보 짓”이라며 “국민 90%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하는데, 저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는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는 기본소득형이어야 한다”며 “그게 토지공개념에 부합하고, 부동산 불로소득, 즉 지대를 국민에게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e스포츠 발전을 위한 의원 모임 창립총회’에서 박성석 프레스 브리온 단장과 악수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환원하며 소득자산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장동 의혹 특검론과 관련해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건 조건을 붙인 게 아니다”며 “일단 (검찰에) 기회를 주고 충실히 수사하도록 기다려보되, 그걸 영원히 기다릴 수는 없다. 일정 정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싶으면 당에서 강력하게, 예외 없이 특검을 시행하는 게 좋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후보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창립총회에 참석해 게임산업을 육성하고 청년 세대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국군체육부대(상무) E-스포츠단 창단’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과거 우리 게임산업이 전 세계를 선도하는 입장이었으나 박근혜 정권에서 게임을 미약처럼 4대 악으로 규정, 규제 일변도로 전환하며 중국에 추월당했다”고 비판했다.

유해림 기자 wiseforest@

### 심상정, 모병제 공약 2030년대부터 징집종료 구상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5일 2030년대부터 병사 계층을 전원 모병으로 전환하는 ‘한국형 모병제’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단계별로 모병제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1단계에선 의무복무 12개월의 징집병과 의무복무 4년의 전문병사를 혼합운영하는 징·모 혼합제를 2029년까지 운영한다. 이후 2단계인 2030년대부터는 징집을 종료하고 병사 계층을 전원 모병으로 전환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국방력도 현대화·과학화를 중심으로 끌어올린다. 상비병력 규모는 작년 말 기준 55만5000여 명에서 30만 명까지 줄인다. 최전방은 병력이 아닌 센서와 정찰 네트워크 무장한 지능형 경계태세로 운영한다.

심 후보는 군 처우 개선도 함께 약속했다. 전문 병사 월급은 월 300만 원 수준으로 보장하고 5년 차 부사관으로 진급하면 대학·대학원을 지원한다. 의무 예비군 제도도 폐지한다. 연 1~3개월 범위에서 군에 복무하는 다양한 예비역 복무제로 대체한다.

심상정 후보는 “군의 처지와 실정에 맞게 모병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되, 직업 군인에서 남녀의 평등복무를 실현하는 단계적 모병제”라며 “모병제가 정착되더라도 미국과 같은 병역 등록 의무제를 시행해, 모든 병역의무자는 유사시에 신속하게 동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모병제 도입 시 ‘가난한 집 자식들만 군대에 간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미국의 경우 흑인과 빈곤층이 주로 입대한 것이 사실이나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1990년대 후반부터 괄목할 만한 변화를 보였다”고 밝혔다.

유해림 기자 wiseforest@

### ‘준표형’이 답한다? 하루 만에 1.5만 개 게시물

홍 ‘청년의꿈’ 플랫폼서 소통 행보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공개한 청년 플랫폼 ‘청년의꿈’이 오픈 하루 만에 1만 개가 넘는 게시물이 올라오는 등 문전성시를 이뤘다. 이 공간은 홍 의원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을 치를 당시 자신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줬던 20·30 세대를 위해 마련한 소통 공간이다.

15일 오전 기준 청년의꿈 게시판에 게재된 글은 1만5000건에 육박했다. 특히 청년들이 고민을 얘기하고 홍 의원이 답변하는 ‘청문홍답’ 코너에는 이미 1300개가 넘는 질문들이 올라왔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지 만 하루가 안 됐는데도 350만 페이지뷰를 기록했다”면서 “아직 포털 등록도 못 했는데 (찾아온 것을 보

면) 그만큼 우리 청년들의 갈망이 컸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게시글 중에는 홍 의원이 경선 과정에서 내세웠던 정책은 물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겨냥한 민감한 질문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 글들로 가득했다. 제21대 대선 도선에 대한 의지도 엿보였다. ‘몸 관리 하셔서 다음 대선 부탁 드립니다’라는 글에는 ‘운동 열심히 하겠습니까’라고 답했다.

홍 의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20·30들과의 소통을 이어갈 것으로 보

인다.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없지만 청년 플랫폼을 기본 베이스로 삼고 다양한 프로그램 등으로 넓혀갈 것 같다”면서 “온라인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향후엔 20·30과의 오프라인 만남도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향후 홍 의원의 국민의힘 워팀 합류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앞서 그는 연일 페이스북을 통해 “거듭 말하지만 비리·부패 대선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선을 그고 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 ‘마그네슘’ 들어진 中 ‘제2의 요소수’ 사태 오나

글로벌 제조사들이 공급망 붕괴로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중국이 또 하나의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중국의 전력난과 엄격한 환경정책에 의해 마그네슘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은 국내로 들어오는 마그네슘 주괴가 100% 중국산이어서 ‘제2의 요소수’ 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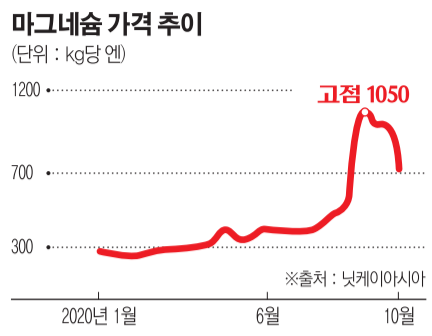
15일 닷케이아시아에 따르면 현재 마그네슘 가격은 톤당 5800달러(약 684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고점 대비 40% 하락했지만, 여전히 연초 대비 3배 가까이 치솟은 상태다.

마그네슘 생산은 에너지 집약적인 데다가 글로벌 생산량의 80%를 중국이 담당하

글로벌 생산량 80% 차지하는 中 탈탄소 정책에 몰려 3배 폭등 세계 경제 ‘중국 리스크’에 비상

는 만큼 중국 정책에 가격이 이리저리 요동치는 실정이다. 실제로 9월 말 중국에서 전력난이 일어나고 정부가 환경정책의 하나로 석탄 채굴을 제한했을 당시 마그네슘 가격은 톤당 1만 달러까지 치솟았다. 마그네슘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철과 석탄, 기타 원자재 가격까지 동반 상승했다.

마그네슘 가격이 마지막으로 급등했던 2008년에도 원인은 중국이었다. 당시 베이징 올림픽을 준비하던 중국이 ‘푸른 하늘’을 유지하기 위해 굴뚝 산업들을 규제하면



서 가격은 톤당 6500달러까지 급등했다. 마그네슘은 기어박스과 연료 탱크 커버 등 자동차 부품에 주로 활용되는 알루미늄 합금의 필수 원료다. 여기에 철강업에서 황을 제거하는 데 쓰이는 등 전 세계 주요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되는 소재로 평가된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달 유럽자동차제조

협회(EAMA)와 유럽알루미늄협회 등 9개 유럽 산업단체는 “중국산 마그네슘의 심각한 공급 부족 결과로 유럽 전역에서 제품 생산 중단이 임박했다”며 긴급 경고문을 발표했다. 유럽에서 사용되는 마그네슘의 93~95%가 중국산이다. 일본도 중국산 마그네슘 의존도가 90%를 넘는다.

니폰스틸의 모리 다카히로 부사장은 “우리가 모든 비용을 다 감당할 수 없다”며 “고객사에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일정 부분 부담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니폰스틸은 올 여름 핵심 고객인 도요타 자동차와의 협상으로 강제 가격을 올렸으며 하반기 추가 인상을 위해 협의 중이다.

게다가 마그네슘 가격 폭등 후 일부 중국 생산업체들이 보증금을 예치해둔 고객

사와의 선계약을 취소하고 더 높은 가격에 새 거래처와 계약하는 등 공급망 혼란을 더 고조시켰다.

중국인 전 세계 마그네슘 생산 대부분을 책임지는 이유는 중국산 석탄과 규소철 등 관련 원자재와 전기료가 저렴한 영향이다. 하지만 이번 대란 이후 곳곳에서 거래처를 다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마그네슘 트레이딩 업체인 탁트레이딩의 가미시마 다카후미 상무는 “중국인 탈탄소 정책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산업은 공급 제한에 계속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마그네슘 가격이 톤당 2000~3000달러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연료망 장악’ 아이티 갭단, 정부와 휴전** 14일(현지시간)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 수도 포르투프랑스의 한 주유소에 차량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아이티는 지난달부터 도시 곳곳이 갭단에 의해 장악된 상태다. 갭단은 그동안 연료를 볼모 삼아 총리 사퇴를 촉구했다. 연료 저장시설을 오가는 도로를 봉쇄하고 연료를 수송하는 트럭 기사를 납치한 데 이어 최근엔 일선 학교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 하기에 이르렀다. 미국 국무부는 “광범위한 연료난으로 인해 유사시 은행 업무나 교통 등 필수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며 자국민에게 철수를 권고하기도 했다. 이날 갭단 연합체 G9이 아이티 정부와 휴전하고 기름 공급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시민들이 주유소에 몰려들었다. 포르투프랑스/로이터연합뉴스

## 미국 ‘코로나 재유행’ 비상 유럽 ‘록다운 카드’ 만지작

높은 백신 접종률을 토대로 일찍이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를 선도했던 서구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백신 접종 연령 확대와 부스터샷(추가 접종)으로도 부족한 나머지 ‘록다운(봉쇄) 카드’까지 하나둘씩 꺼내 들고 있는 추세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지난주에 거의 200만 명이 가까운 신규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국에서도 중서부·남서부·북동부 등 일부 지역에서 감염자가 증가하면서 의료 체계가 압박을 받고 있다.

유럽 국가 중 일부는 데는 백신에만 의존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돼 ‘록다운 재개’라는 최후의 수단까지 동원하고 있다.

가장 먼저 봉쇄 정책을 꺼내 든 것은 네덜란드였다. 앞서 네덜란드는 13일부터 3주간 음식점 및 점포 영업시간 제한, 사회적 거리 두기 재도입, 재택근무 권고 등 봉쇄 정책을 부분적으로 재개한다고 밝혔다. 뒤이어 오스트리아는 12세 이상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외출 제한령을 내렸다. 15

일부터 적용되는 이 조치는 식료품 구매, 출퇴근 등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이 인정되지 않으며, 위반 시 최대 1450유로(약 196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밖에도 최근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사상 최대치인 5만 명을 돌파한 독일도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주요 행사의 출입 제한 등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권을 중심으로 한 재유행 추세는 백신 접종 가속화와 위드 코로나 추세에 따라 가까스로 기지개를 켜려던 산업계에 다시금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팀 클락에미레이트 항공 사장은 CNBC 방송에서 “4차 유행이 밀려오는 것을 보고 있으며,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온갖 종류의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부스터샷과 어린이 백신 접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 공중보건 분야 사령탑 격인 비버 머시 의무총장은 “겨울철 코로나19가 확산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비해야 한다”며 “미접종자와 부스터샷 대상자는 접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효선 기자 hsbyun@

## 인플레이션에 ‘성난 민심’ 바이든은 “코로나 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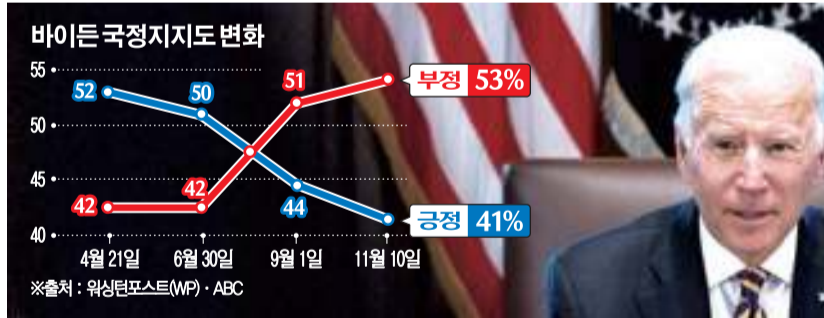
바이든 지지율, 41%로 곤두박질  
美 소비자물가 불안 장기화 조짐  
옐런 “팬데믹 종식돼야 물가 잡혀”

인플레이션이 조 바이든 미국 정권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일시적일 것이라던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하자 민심이 등을 돌리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사상 최저치를 갈아치우며 곤두박질했다. 다급해진 미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화살을 돌렸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바이든 정권은 출범 11개월 만에 최악의 지지율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워싱턴포스트(WP)와 ABC가 7~10일 미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 3.5%포인트), 바이든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41%로 나타났다. 지난 9월 조사 당시의 44%에서 더 추락한 것이다.

민심 이반의 주요 배경은 물가 급등에 따른 경제 충격이다. 1조 달러(약 1180조 원)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 처리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미국의 리더십 회복 등 나름의 성과에도 인플레이션 장기화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실제 미국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



(CPI)는 전년 대비 6.2% 급등했다. 전문가 전망치(5.9%)를 넘어선 것은 물론 1990년 12월 이후 30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치솟는 물가에도 아직은 소비가 받쳐주고 있다. 9월 미국 소매판매는 8월보다 0.7% 늘었다. 16일 발표되는 10월 소매판매도 예상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SPDR S&P 소매 ETF(상장지수펀드)는 올 들어 상승률이 60%를 넘어섰다. 소비회복 추세에 힘입어 홈디포, 월마트, 타깃, 백화점 체인 TJX, 메이시스 등 소매업체들은 줄줄이 실적 강세를 보였다. 다만 CNN은 인플레이션이 아직 수요를 위축시키지 않았지만, 지속 여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국정 운영의 걸림돌로 떠오르자 미 정부 관계자들은 진화에 나섰다. 제니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날 CBS ‘페이스 더 내이션’과의 인터뷰에서 물가 안정화는 코로나19에 달렸

다고 강조했다. 옐런 장관은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은 코로나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을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싶다면 팬데믹을 종식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CNN과의 인터뷰에서 “물가상승은 정책 실패가 아니라 팬데믹에 따른 세계적 현상”이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을 시작할 때, 이미 경제는 위기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물가 안정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고 있어 인플레이션 전망은 어둡다. 존스홉킨스대학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서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가 평균 7만 명 선으로 올라섰다. 최근 하루 신규 확진자가 평균 3500명 이상을 기록, 4월 이후 최대치로 나타난 미네소타주는 “증가 속도가 엄청나다”고 우려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 中, 홍콩증시 상장 자국기업도 안보심사

“국가안보 위해요인 제거”  
인터넷 데이터 통제 강화

중국 정부가 인터넷 데이터에 대한 통제를 한층 더 강화했다. 홍콩증시에 상장할 예정인 자국 기업도 국가 안보 관련 데이터를 취급하면 사전 안보심사를 거처도록 했다.

15일 일본 니혼게이지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은 전날 ‘인터넷 데이터 안전관리 조례’ 초안을 공표했다. 해당 규제안은 지난 1일 시행한 개인정보 보호법 등 데이터 관련 법제에 근거한 것으로, 내달 13일까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조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새 규정은 국가의 안전을 해치거나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기업 등 데이터를 처리하는 주체에 대해 안전 대책을 요구한다. 데이터 유출 등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대책을 세울 것을 의무화한다.

초안에는 중국 내 인터넷을 이용해 데이터를 처리하는 활동 이외에도, 해외기업들이 중국을 향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해 중국 내 개인이나 조직의 데이터를 다루면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100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이 해외 상장할 때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요인이 없는지 당국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재차 의무화했다. 중국에서 회원 100만 명 이상이라는 기준은 사실상 해외 상장을 검토하는 거의 모든 기업이 해당된다. 이에 더해 중국 정부는 홍콩에 상장해 국가의 안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심사가 필요한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홍콩은 중국의 특별행정구임에도 홍콩증시에 상장하는 것을 해외 상장 때처럼 조사 대상에 포함한 셈이다.

중국은 지난 2017년 인터넷 안전법을 시행한 데 이어, 올해 데이터 안전법을 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시행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초안에 대해 “이러한 3개의 법률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이와 관련해 중국이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자국 내 상장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데이터 수집 및 저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효선 기자 hsbyun@

# 7년 전 실패한 전세대출 보증 규제, 다시 꺼내든 정부

금융위원회와 SGI서울보증이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막판 조율하고 있다. 하지만 7년 전 전세자금 대출을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식과 유사한 규제를 들이대 '역대급' 가계부채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역효과를 낸 만큼 전문가들은 현 정책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유광열 SGI서울보증 대표는 11일 고가 전세대출 보증 금지를 묻는 질문에 "검토 중"이라며 "(유관기관과) 조율해 적절한 시점에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고가의 기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앞서 7일 "초고가 전세 규제에 대해선 실무자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SGI서울보증에 중심이 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초고가의 기준에 대해서는 "최근 전셋값이 많이 올라 9억 원을 넘는 전세도 상당히 많아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않을 것"이라며 "9억 원 훨씬 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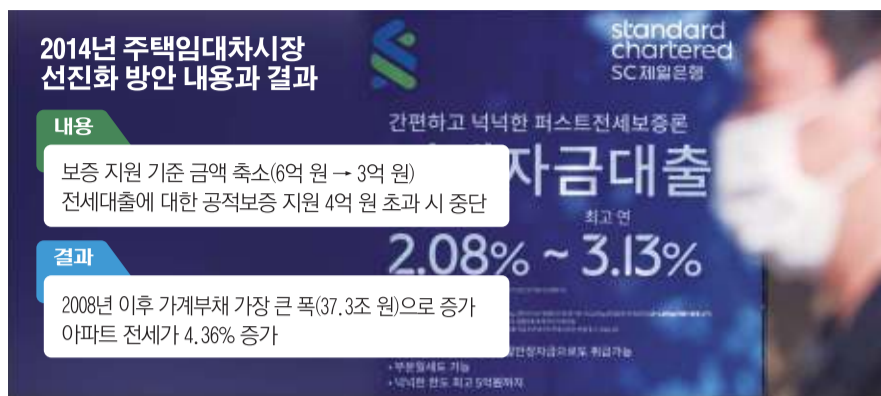
대개 전세대출은 SGI서울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 등 3곳의 보증기관이 금융사에 약 90%를 보증해 준다. 은행은 고객이 대출을 갚지 않아도 보증기관을 통해 대출원금의 일정 부분을 회수할 수 있어 고객에게 전세대출을 내준

2014년 '임대차시장 선진화'에 가계대출액 증가 폭 '역대 최대' 아파트 전셋값도 4% 넘게 올라 '초고가' 규제 댄 그 이하에 수요 전세 선택지 줄어 서민층도 피해 기준액 놓고 형평성 논란 여지도

다. 현재 SGI서울보증의 전세자금 보증 한도는 최대 5억 원이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초고가 전세대출에 대해 일괄적으로 보증하지 않을지, 아니면 보증 비율을 줄일지는 미정이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전세대출에 칼을 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4년에도 전세대출 보증의 한도를 줄인 적 있다. 당시 정부는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을 발표하면서 6억 원 이하이던 보증지원 기준 금액을 3억 원 이하로 제한했다. 일반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지원은 보증금 4억 원 초과(수도권)에 한해 중단시켰다. 지방의 경우 이 기준은 2억 원이다.

정부의 이런 정책에도 7년 전 가계대출은 보란 듯이 올랐다. 한국은행의 '2014년



12월 시장 동향'에 따르면 2014년 말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560조9000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37조3000억 원 늘었다. 이는 연간 기준 통계가 집계된 2008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그렇다고 전셋값이 잡힌 것도 아니었다. 2014년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년보다 4.36% 증가했다. 당시 전셋값이 꾸준히 증가해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은 처음으로 70%대를 돌파했다. 주택 매매 가격과 전세금 간의 차액이 줄어들어 갭투자를 하기 더 쉬운 환경이 조성됐다는 뜻이다. 또 이는 KB국민은행이 관련 통계를 발표한 1998년 12월 이후 17년 만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규제로 서민의 피

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 확률은 낮다. 초고가 전세에 대해서만 규제를 한다고 해도 이 파급효과가 서민에게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초고가 전셋집에 들어가려던 중산층이 이번 규제로 들어가지 못하면 그 아래 가격의 전셋집에 들어가고, 이 집을 준비하던 서민층은 중산층에게 밀려 선택지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대책은) 핀셋이 아닌 '교각살우'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초고가 전세의 기준도 문제다. 김소영 서울대학교 교수는 "초고가 (전세) 가격이 9억 원으로 정해질 땐 9억 원을 넘는지, 안 넘는지(에 따라) 규제가 달라져 기준 가격

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며 "(특정 기준 액으로) 딱 자르는 것보다 비례적으로 하는 게 (보증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6% 내에서 관리하기 위해 분할상환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이 법에 따르면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등을 취급할 때 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으로 내야 한다. 주택금융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금융기관의 출연요율은 기준요율, 차등요율, 우대 요율의 합으로 정해지는데 이번 개정은 우대 요율의 폭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대 요율은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대출비중 목표를 초과 달성한 금융사에 한해 0.01~0.06% 감면해주는 제도다. 즉 이번에 우대 요율의 폭을 0.01~0.1%로 확대한 것은 분할상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금융사의 주신보를 줄여주겠다는 뜻이다. 이 제도 역시 가계부채를 줄이는 효과를 내지는 미지수다. 파격적인 혜택이 없으면 고객 입장에서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분할상환은 부담돼 선택을 꺼릴 것이기 때문이다. 문수빈 기자 bean@

## 빅테크에 회초리 든 금감원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설까

금감감독원이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업체들에게 업무 부실과 보고 미흡 등으로 제재를 내렸다. 새로부임한 정은보 신임 금감감독원이 최근 은행권과 밀월 관계를 형성하면서 혁신을 앞세워 규제 치외법권을 누려왔던 빅테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온라인 금융 플랫폼인 네이버파이낸셜은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등으로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감사 결과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미흡과 전산 기록 변경 위반, 전자금융거래 변경 약관 통보 미비로 2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원 3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내부 통신망과 연결된 일부 내부 업무용 시스템을 회사 전체 인터넷 단말기에 접속 가능한 상태로 운영했다가 적발됐다. 전자금융거래법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전자금융업자는 내부 통신망과 외부통신망을 분리 및 차단하고 접속을 금지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

전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데이터 조회 내용 등이 보관된 정보처리시스템도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지 않고 운영한 점도 드러났다. 전산실 내 일부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망 분리 적용 예외를 위한 망 분리 대체 정보보호 통제를 적용하지 않고 정보보호위원회 승인 없이 인터넷 등 외부 통신망과 연결해 운영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약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행 일 1개월 전에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도 지적받았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2일, 카카오뱅크에 의심 거래 보고가 미흡하다며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이 잇달아 빅테크 군기잡기에 나서는 동시에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금융권에 팽배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빅테크와 거리두기에 나서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정 원장은 지난 최근 금융권 CEO 회동을 진행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장은 이미 만났고, 생보·손보 업계와의 만남도 조만간 성사된다. 은행연합회 사원은행 중 인터넷전문은행만 제외됐다.

정 원장은 이례적으로 지방은행장만 별도로 만나면서 지방은행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정 원장은 간담회에서 "정 원장은 '지방은행들이 놓여있는 경영적 환경이 어렵다. 지역경제

의 어려움과 인터넷은행 출현하면서 빅테크 등으로 인해 지방은행 경영적 어려움을 고려해 유연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간담회에 인터넷은행을 제외한 이유에 대해 올해 중·저 신용자 대상 대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자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올해 목표치는 21.5%다. 하지만, 두 은행은 각각 13.4%(3분기 기준), 15.5%(상반기 기준)에 그쳤다. 34.9%를 목표로 잡았던 토스뱅크도 현재 28.2%를 달성한 뒤 대출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김범근 기자 nova@

### 네이버 '과태료·임원 주의' 카뱅에도 '경영 유의' 조치 금융 CEO 릴레이 회동에 인터넷전문은행 제외시켜

## 주담대 금리 또 오른다

코픽스, 전달보다 0.13%p ↑  
은행 앞다퉈 우대금리 축소  
한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주담대 금리 계속 오를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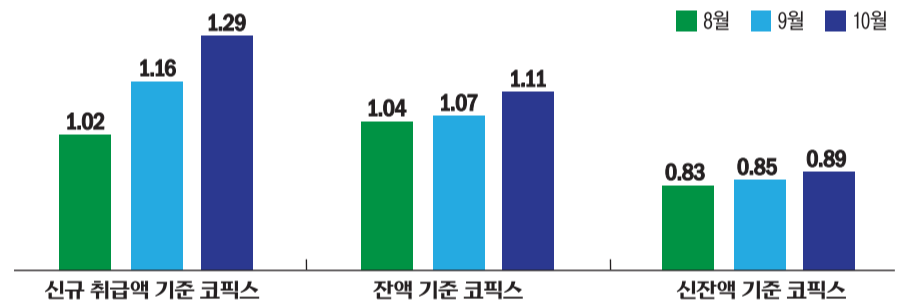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더 오를 전망이다. 시중은행 변동금리형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지난달보다 상승했다.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가계대출 규제와 시장금리 상승세로 대출 금리가 연일 치솟고 있는 가운데 연 5%대(최고금리 기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15일 10월 기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29%라고 공시했다. 전달과 비교해 0.13%포인트(P) 오른 수치다. 잔액 기준 코픽스는 1.11%, 신잔액 기준 코픽스는 0.89%로 모두 전월보다 0.04%p 올랐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NH농협·신한·우리·SC제일·IBK기업·KB국민·한국씨티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 상품 금리가 인상되거나 인하될 때 이를 반영해 상승하거나 하락한다. 코픽스가 올랐다는 것은 은행이 돈을 조달할 때 드는 비용이 늘었다는 뜻이다. 은행로서는 원가가 오르면 셈이어서 신규취급액 코픽스를 기준으로 하는 대출 금리도 오르게 된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당장 16일부터 신규 코픽스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에 이번 상승폭을 반영할 예정이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상승함에 따라 주담대 금리는 현재보다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4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의 지난주 기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3.31~4.839%였다. 월초(3.31~4.814%)보다 0.025%p 오른 수치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와의 전쟁을 선포하자, 은행들은 정부 기조에 맞춰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출을 관리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7

최근 3개월 코픽스 수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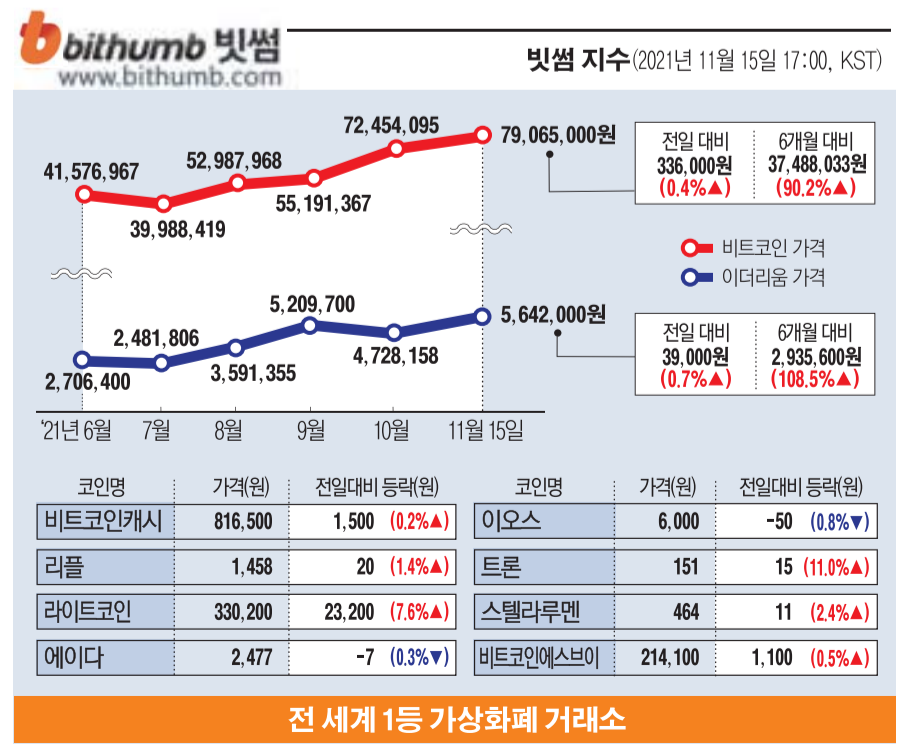


일 아파트 담보대출 우대 금리를 최대 0.5%에서 0.3%로 인하였다. 0.3%였던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 월 상환액 고정대출 우대금리도 없었다. 이 탓에 담보가 있어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주담대가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높아지는 금리역전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주담대 금리 인상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기준금리는 0.75%로, 오는 25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기준금리는 1% 이상이다.

한편 잔액 기준 코픽스와 신 잔액 기준

코픽스는 일반적으로 시장 금리를 서서히 반영하나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신규 조달한 자금으로 산출돼 상대적으로 시장금리 변동이 신속히 반영된다.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어 이후 꾸준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주담대뿐만 아니라 신용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 금리가 전반적으로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와 잔액 기준 코픽스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가 포함된다. 신 잔액 기준 코픽스는 여기에 기타 예수금과 기타 차입금 등이 포함된다. 문수빈 기자 bean@



# 가족의 부담 덜어주는 All Care 간병보험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All Care 해주는  
New 늘곁에 종합간병보험으로 미리 준비해주세요



##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All Care 해주는 한화생명 New 늘곁에 종합간병보험(무)

상담문의 080.365.6363

한화생명



을 검색하세요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험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기존 계약 해지 후 신 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택 특약 가입여부에 따라 보장내용 및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품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hanwhalife.com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21-02902호 (2021-07-27 ~ 2022-07-26) 준법감시인확인필 CS 21-10-107 제작부서: 브랜드운영팀(2021.10)



# 인플레이에 강달러 시대... “달러 ETF가 투자 요약”

원·달러 환율 꾸준히 상승곡선  
개인 투자자들도 베팅 나서  
연초 이후 수익률 최고 17%  
“상품별 투자기간 고려 대응을”

투자자 A 씨는 지난 9월 미국 달러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에 2억 5000만 원을 투자했다. 달러 가치가 오르는 데다 미국이 내년 조기에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제기자 달러 강세로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5일 달러당 원화가격은 1178.40원으로 연초 대비 8.89% 상승(원화가치는 하락)했다. A 씨는 원·달러 환율이 조정을 보이면 다른 달러상품에도 추가 투자할 생각이 다.

미국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시기가 눈앞에 다가오자 달러 자산에 투자금이 몰리고 있다. 요즘 증권사 프라이빗뱅킹(PB)센터에는 달러 투자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 B증권사 PB팀장 C씨는 “과거에는 고액 자산가 위주였지만 요즘은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도 커졌다”고 말했다.

15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달러 자산에 투자하는 주요 ETF는 연초 이후 양호한 수익률을 이어가고 있다.

‘삼성KODEX미국달러선물특별자산’은 연초 이후 수익률이 8.40%에 달했다. 최근 6개월 수익률은 4.17%다. ‘키움KOSF미국달러선물특별자산’의 경우 연초 이후 수익률이 8.38%, 최근 6개월 수익률은 4.24%인 것으로 집계됐다.

두 ETF는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한 달 기준으로 각각 약 77억 원, 약

18억 원의 자금이 유입됐다.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달러 자산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원·달러 환율 상승 추세에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레버리지 ETF의 성과는 더 압도적이다.

‘삼성KODEX미국달러선물레버리지특별자산’과 ‘키움KOSF미국달러선물레버리지특별자산’의 연초 이후 수익률이 각각 16.76%, 16.70%로 높은 편이다. 최근 6개월 동안은 각각 8.12%, 8.29%의 수익률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KODEX미국달러선물레버리지특별자산은 한 달 새 약 29억 원, 키움KOSF미국달러선물레버리지특별자산에는 약 111억 원의 자금이 순유입됐다.

올 들어 원·달러 환율은 꾸준히 상승곡선(원화가치 하락)을 그려왔다. 지난 6월 1일 1105.90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12일 1198.80원에 마감해 연고점을

돌파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한때 1182.10원까지 뛰었다.

유로, 파운드 등 6개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뉴욕 외환시장에서 95.17을 기록했다. 3주 연속 오르며 연중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이 같은 달러 가치 급등은 미국발(發)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이다. 석유 등 원자재 가격 급등에 물가 상승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준금리 인상이 더 빨라질 것이라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 금리가 오르면 달러 가치는 상승한다.

앞서 발표된 미국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도 지난해 10월보다 6.2% 뛰며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 원·달러 환율 상승에 기쁨을 부은 격이다. 이 밖에 금융시장 불확실성도 안전자산인 달러 수요

를 키우고 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물가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웃돌았다”며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한 것이 달러 강세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달러 ETF 투자 시에는 상품별로 단기적인 대응과 장기적 관점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다.

이은행키움투자자산운용전략지원팀장은 “현재 시장에선 달러 가치 상승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많다”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에 투자하는 1배짜리 ETF는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다만 레버리지 상품은 복리 효과가 있어 단기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인버스 ETF 상품의 경우 해외주식 투자 시 헤지(위험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박상재 기자 sangjae@

## ‘카카오 3형제’에 기관이 꽃힌 이유

코스피200·MSCI지수 편입 기대  
이달들어 7000억 넘게 순매수  
카카오페이에만 4052억 ‘사자’

카카오 3형제에 기관 투자자 자금이 몰리고 있다. KOSPI200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한국 지수 편입 등 수급 이슈와 맞물려 대규모 매수세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기관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삼성전자로 5116억 원 어치 주식을 순매수했다. 이어 카카오페이(4052억 원), 크래프톤(2059억 원), 카카오게임즈(1788억 원), SK하이닉스(1754억 원), 카카오(1200억 원) 등이 나란히 순매수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기관투자자들은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카카오 등 이른바 ‘카카오 3형제’를 대거 담았다. 그중에서도 카카오페이에 가장 많은 기관 자금이 몰렸다. 이달 중순 KOSPI200 정기 변경을 앞두고 편입 기대감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이달 기관매매 현황 (단위: 억 원)

종목명	순매수	종목명	순매수
삼성전자	5116	카카오	1200
카카오페이	4052	LG이노텍	1143
크래프톤	2059	두산중공업	9976
카카오게임즈	1788	NAVER	7357
SK하이닉스	1754	KT&G	6764

\* 출처: 한국거래소

해석된다.

정광명 DB금융투자 연구원은 “향후 출시 예정인 카카오페이증권 MTS와 디지털 손보사를 통한 신규 금융서비스 매출액 증가로 전반적인 매출액 성장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며 “단기적으로 KOSPI200 편입 등 수급적인 이슈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카카오게임즈도 MSCI지수 편입 이슈에 따라 기관투자자 뭉치돈이 쏟아졌다. 지난 12일 MSCI 반기 리뷰 결과, 한국 지수에 크래프톤, 엘앤에프, F&F, 카카오게임즈, 일진머티리얼즈, 에스디바이오센서 등 6개 종목이 새롭게 편입된다. 이달 30일 증가 기준으로 리밸런싱 적용 후 내달 1일

부터 적용된다.

안지섭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MSCI 지수 편입에 따른 카카오게임즈 패시브 매입 수요는 1913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달 기관투자자는 카카오도 1200억 원 어치 주식을 담았다. 내년 실적 성장 기대감에 증권가에서도 카카오에 대한 목표치를 높이고 있다.

이날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 리서치센터 3곳 이상에서 집계한 카카오 적정주가는 16만4947원으로 나타났다. 4분기 예상 매출액은 1조7620억 원, 영업이익은 2115억 원으로 나타났다.

윤예지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광고비즈니스는 내년 40%에 가까운 성장이 예상된다”며 “지난해 외형 성장을 이끌었던 비즈보드 하루 매출은 10억 원 이상을 유지하며 견조한 흐름이 예상되고, 관계형 광고 서비스 ‘톡채널’ 성장세는 비즈보드를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카카오엔터는 멜론 인수를 끝으로 스토리, 미디어, 뮤직 사업을 통합한 종합 엔터기업으로 재정비할 전망이다”고 덧붙였다. 이인아 기자 in@

## 내 투자성향 맞게 꾸미는 MTS 하나금융투자 ‘원큐스탁’ 출시

메뉴구성·편집 자유자재로  
해외주식 매매 절차도 간소화



하나금융투자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전면에 내세운 모바일 트레이딩 어플리케이션(MTS) ‘원큐스탁(1Q Stock)’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새로 출시된 ‘원큐스탁’의 가장 큰 특징은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이다. 첫 화면부터 원하는 대로 메뉴 구성은 물론 화면을 보는 방식까지 개인의 취향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투자와 직접 이어지는 종목의 편집도 자유롭다. 빅테크, 친환경, 게임 등 관심 키워드로 카테고리 설정해 관련 종목을 담을 수 있고, 해당 종목 내에 투자와 연관된 정보를 추가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 주식 투자도 쉽게 구성했다. ‘원큐스탁’에서 미국, 홍콩, 중국 주식의 매매가 가능하다. 외화가 없어도 바로 환전이 가능해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다. 해외 주식 거래를 위해 필요한 여러 단계의 등록 절차도 한 번에 가능하도록 간소화했다.

주식 초보자들을 위한 접근성도 높였다. 해외 주식과 관련된 적립식 주문과 ETF 및 리서치 기반의 정보를 제공해 테슬라, 애플 등 해외 주식을 더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편의성도 강화했다. 투자 캘린더를 통해 청약 일정부터 종목별 이벤트를 간편하게 볼 수 있다. 관심 있는 주식의 정확한 종목명을 알지 못해도 브랜드, 상품명, CEO 등의 연관 키워드로 종목을 검색해 매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용자의 거래패턴을 분석해 선호할 만한 종목을 추천하는 데이터랩 서비스도 개선해 스마트한 분석을 통한 입체적인 정보도 제공한다. 박기영 기자 pyg@

## 증권업계 너도나도 “마이데이터 사업”...누가 선점할까

미래에셋, 투자진단 콘텐츠 제공  
키움, AI가 포트폴리오 구성

12월 1일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증권업계가 소리없는 전쟁을 펼치고 있다. 15일 금융위원회는 NH투자증권과 KB증권, 에프앤가이드 등에 대해 마이데이터 사업 분허가를 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금융사, 공공기관 등에 산재한 소비자의 각종 금융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집해 이를 바탕으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증권사 중 마이데이터 서비스 경쟁 준비가 가장 탄탄한 곳은 지난 1월 증권사 중 유일하게 사업 자격을 취득한 미래에셋증권으로 예상된다. 미래에셋증권은 업계 첫 ‘올인 원(All-in-One) 투자진단 보고서’를 통해 다른 금융회사의 자산을 한번

에 모아볼 수 있는 기능과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투자 진단 콘텐츠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3월 롯데카드와 ‘데이터융합 비즈니스’ 양해각서를 체결 후 10월 18일 근거리무선통신(NFC) 기능을 이용한 모바일 결제 방식의 ‘미래에셋페이’도 오픈했다. 지난 7월 마이데이터 사업 분허가를 취득한 하나금융투자는 하나은행, 하나카드, 하나원큐업 등으로 통합 WM지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9월 분허가를 받은 한국투자증권도 리서치센터에서 개발한 인공지능(AI) ‘에어(Air Research)’를 접목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키움증권은 목표달성형 자산배분 로보어드바이저 ‘키우GO’의 활약이 기대된다. ‘키우GO’는 고객 투자의 목표·기간·예정금액·성향 등을 입력하면 자체 개발한 AI 로보어드바이저로 분석을 거쳐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투자일임 서비스로 지난 5월 출시됐다.

이날 분허가를 받은 NH투자증권은 12월 1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에 맞춰 자산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통합자산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KB증권은 내년 초 마블(M-able) 앱에서 마이데이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정보 제공 업체 에프앤가이드는 마이데이터 분허가를 바탕으로 기업고객(B2C) 사업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다수의 증권사들이 타 금융권과 비교했을 때 마이데이터 허가를 늦게 받았기 때문에 시장 선점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서비스가 절실한 실정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의 승인 시기가 늦어질수록 관련 시장 선점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 경쟁력 역시 장담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성진 기자 csjin2002@

## 미래에셋증권 10년 연속 DJSI 월드지수 선정

“지속가능경영 책임 다할 것”

미래에셋증권(대표이사 최현만·사진)은 지난 13일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월드지수(DJSI World)’에 10년째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DJSI 월드 지수는 전 세계 상장사 중 유동 시가총액 상위 2천544개 평가 기업을 대상으로 경제적 성과와 환경, 사회, 지배구조 성과를 고려해 상위 10% 기업을 선별해 발표한다. 세계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는 지수로, 사회책임투자의 척도로 활용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이 속한 금융서비스 부문에선 전 세계 117개 대상 기업 중에서 14곳만 월드 지수에 편입됐다.

미래에셋증권 올해 ESG위원회 포함 4단계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해 전사적인 ESG역량 제고에 나서고 있다. 특히 ‘ESG 정책 프레임워크’와 환경, 사회 정책 선언문 제정을 통해 ESG 리스크 관리와 지속가능금융 집계를 통한 신규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미래에셋증권의 환경, 사회, 거버넌스, 책임투자 및 지속가능금융 제공 등 ESG경영 전반에 걸친 활동들이 공신력 있는 글로벌 기관으로부터 10년간 인정받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모범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고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미래를 개척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은 2006년부터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고 올해 9월 글로벌 RE100 가입을 마쳤다.

설경진 기자 skj78@



# 독과점 우려에... 국내 항공·조선 대형 M&A '하세월'

## 발목 잡은 경쟁심사 당국

한국 기간산업을 재편할 대형 인수·합병(M&A)이 경쟁심사 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하염없이 세월만 보내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논의가 공식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인수는 해를 넘길 전망이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은 3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6일 충남경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5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공식화했다. 양사의 통합이 정부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하면서도 항공산업의 정상화를 끌어낼 방안이라 판단했다. 논의가 본격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통합 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내외 경쟁 당국이 심의를 지속하고 있어서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항공사 통합에 대해 "경쟁 제한성이 있어 일정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심사관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실제

##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5개국서만 기업결합 승인 받아  
美 등 핵심국 불허 땀 좌초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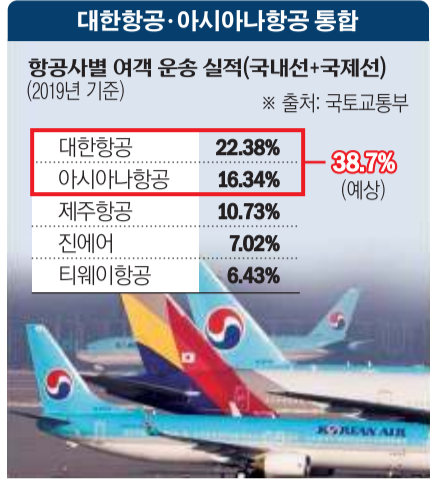
##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EU, 팬데믹·담당자 교체 등 악재  
합병 무산 땀 경영 정상화 타격

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는 국제노선 총 143개 가운데 통합 시 점유율이 50% 이상이 되는 노선은 32개에 달한다. 인천에서 출발해 LA, 뉴욕, 시카고, 바르셀로나, 시드니 등으로 향하는 7개 노선은 양사 점유율이 100%에 달한다.

대한항공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양사의 여객 슬롯 점유율이 38%에 불과해 독과점 우려가 없다고 반박한다. 양사 점유율은 국제 항공사의 허브공항 슬롯 점유율과 비교하면 낮은 수치다. 아메리칸 항공의 델러스 공항 슬롯 점유율은 85%에 달하며, 델타항공의 애틀랜타 공항 점유율은 79% 수준이다. 독과점으로 항공권 가격이 높아져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일축한다.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

## 심사 기다리는 대형 인수 합병(M&A)



고, 다수 항공사가 경쟁을 펼치는 상황에서 양사의 일방적인 가격 인상은 어렵다는 논리다.

특히 대한항공은 올해 1월 14개 국가에 기업 결합신청을 제출했는데, 지금까지 터키와 태국 등 5개국에서만 승인을 받았다. 심사를 진행 중인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핵심 국가에서 불허 결정을 내리면 합병이 어려워질 수 있다.

3년 가까이 지연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도 올해 안에 별다른 결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이후 EU 측의 입장이 합



병 결정 당시와 달라지면서 현대중공업의 제안을 거절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만약 올해 안으로 합병이 결정되지 않으면 채권단은 이들 기업에 올해까지 제공하기로 한 금융 유예조치도 재논의해야 한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현재 현대중공업과 EU 간의 요구사항이 교집합을 형성하고 있지 않다"라며 "결과는 해를 넘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EU 측도 초반(합병 결정 당시)에는 이렇게 완강한 입장은 아니었다"면서 "팬데믹으로 심사가 지연되고, 도중에 담당자도 교체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 합병은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정상화라는 미시적 목표와 국내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거시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하지만 EU 측의 기업결합 심사가 지연되면서 합병 건은 암초를 만났다.

EU 측은 LNG 선박 독과점 우려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승인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회사가 합치면 LNG 선박 점유율은 60% 육박하게 된다. EU는 앞서 승인을 내준 국가와 달리 LNG 선박 수주를 주력으로 한다. 현대중공업은 LNG 선박의 점유율이 높더라도 전체 공급 시장을 조선사가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합병 무산은 대우조선해양에 특히나 악재다. 올해는 수주가 많지만, 이 금액을 재무제표에 반영하기에는 2-4년의 시간이 걸리고, 과거 저가수주 여파가 여전히 상존한다. 채권단도 대우조선해양의 독립적 운영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한편 채권단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에 따른 현물출자 및 투자계약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EU 심사 지연으로 인수기한이 4번째 연장된 것이다. 올해 안으로 결과를 내기가 어려워지면서 계약 기간 역시 추가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진산 기자 jinsan@·유창욱 기자 woogi@



**호텔서 'LG 롤앤TV' 체험해보세요** LG전자가 캠핑을 즐기는 고객을 대상으로 'LG 롤앤TV' 체험 마케팅을 실시한다. LG전자는 15일부터 강원도 평창에 위치한 '휘닉스 평창' 글램핑장과 서울 중구 '레스케이프 호텔' 내 글램핑 스위트룸에 LG 롤앤TV를 설치하고, 방문객들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해 초 출시한 LG 롤앤TV는 캠핑북과 함께 '감성 캠핑에 최적'이라는 입소문이 나면서 최근 판매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등 '차트 역주행'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LG 롤앤TV의 △손쉬운 설치 및 이동 △webOS 탑재로 스마트한 연결성 △완성도 높은 디자인 등으로 캠핑족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제공 LG전자

## 포스코, 친환경차 전기강판 증설 1兆 투입

연산 30만톤 규모 공장 신설  
2025년까지 생산능력 4배 ↑  
온실가스 年 84만톤 감축 효과

포스코가 친환경차에 사용되는 구동모터용 무방향성 전기강판 생산공장을 신설한다고 15일 밝혔다.

구동모터용 무방향성 전기강판은 전기 및 자기를 응용한 기기에 사용되는 철강제품이다.

변압기에 사용되는 방향성 전기강판과 모터·발전기에 사용되는 무방향성 전기강판으로 분류하며 무방향성 전기강판 중 구동모터의 효율을 높여 주행 거리를 늘릴 수 있도록 전력손실을 대



수소전기차 모형을 설치된 구동모터. 사진제공 포스코

폭 개선한 제품을 구동모터용 무방향성 전기강판이라 한다.

포스코는 지난 5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개최된 전기 이사회에서 친환경차 수요 대응과 시장 선점을 위해 내년부터 약 1조 원을 순차적으로 투자해 연산 30만 톤 규모의 공장을 신설하는 안건

을 의결했다.

현재 포스코는 연간 10만 톤의 구동모터용 무방향성 전기강판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번 설비투자를 통해 2025년까지 40만 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포스코는 공장 신설로 기존 대비 폭이 넓은 제품은 물론 두께 0.3mm이하의 고효율 제품과 다양한 코팅 특성을 가진 제품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사회적 온실가스도 연간 약 84만톤 감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포스코는 이번 설비투자를 통해 친환경차 시대에 대폭 확대되는 전기강판 수요 및 전기차 주행거리 향상 요구 등 자동차 산업의 메가트렌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진산 기자 jinsan@

## HMM "주주환원 정책 확대할 것"

기업설명회·공시 등 소통 강화  
선복량 확대로 '물류대란' 돌파

올해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HMM이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15일 밝혔다.

앞서 HMM은 지난 12일 국내 주요 증권사 투자 분석가를 대상으로 개최한 기업설명회(IR)를 통해서도 사상 최대 경영실적과 전망, 배당 확대 등을 통한 주주가치 환원정책 등을 공언했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경영전략 추진계획도 발표했다.

먼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경기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사업구조를 확립할 계획이다. 지속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주주 친화 정책을 확대,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세부적으로 생산성 향상, 원가구조 개선, 운영 효율화를 위한 혁신에 나선다. 재무목표 관리 강화, 신용등급 개선을 통한 자금 조달 및 투자 역량도 높인다. 특히 기업설명회, 공시 등을 앞세워 주

주와의 소통을 강화한다.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 정책 시행으로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입장에서 나온 계획이다.

고객가치 제고를 위해 선박·물류 인프라 확충, 서비스네트워크의 확장, 전 운송 구간 물류서비스 역량과 운영 효율성 제고 등 고객 가치 역시 지속해서 높여나갈 예정이다.

물류 대란 사태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공격적인 선복량 확보에도 나선다. 최적의 선대 투자, 서비스 범위 단계적 확대, 물류 기반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디지털 기반의 서비스 역량 제고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종합물류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컨테이너 선복량을 현재 약 82만TEU(1TEU=6m 컨테이너 1개)에서 2025년까지 120만TEU로 확대한다.

한편 HMM은 올해 3분기 2조2708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지난해(2771억원)보다 719.5%(1조9937억원) 증가한 수치다. 박진산 기자 jinsan@

<3분기 기준>

## 삼성, R&D 누적 투자 16兆 '역대 최대'

작년 동기 대비 3000억 증가

삼성전자가 3분기 연구·개발(R&D) 비용이 16조 원을 넘어서며 또다시 역대 최대 금액을 기록했다. 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 속에서 투자를 통해 활로를 찾으려는 행보다.

삼성전자가 15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3분기까지 누적 연구개발비로 16조1857억 원을 지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5조8894억 원)보다 약 3000억 원가량 증가하며 16조 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상반기 기준 R&D 지출비용은 10조9941억 원이었다. 이후 3개월간 약 5조 원을 더 투자한 셈이다. 매출 대비 R&D 비중은 8%로 전년 동기 9%보다 소폭 감소했다.

삼성전자의 R&D 비용은 2017년 16조8000억 원, 2018년 18조7000억 원, 지난해 20조200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연간 기준으로도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시설 투자비로는 3분기까지 33조5000억 원을 집행했다. 반도체 사업에 약 30조 원, 디스플레이 사업에 2조 원가량이 쓰였다.

이는 지난해 연간 시설투자(35조2000억 원)에 육박하고, 지난해 3분기(25조5000억 원)보다는 무려 8조 원이나 많다. 연간 시설 투자비는 약 35조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시설투자는 시장 변화에 맞게 탄력적으로 집행할 것"이라며 "메모리·시스템반도체 선단 공정의 증설·전환 및 인프라 투자, 디스플레이 증설 투자 등 주력 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수요 증가 대응을 위하여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대 매출처는 애플, 베스트바이, 도이치텔레콤, 버라이즌, 슈프림 일렉트로닉스가 차지했다. 슈프림 일렉트로닉스는 대만 반도체 유통회사다. 노유리 기자 we1228@

## LX그룹 정기임원 인사 '엔지니어·R&D 출신이 절반'

LX그룹 계열사는 전무 6명, 이사 14명 등 총 20명에 대한 2022년 정기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인사를 통해 각 계열사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이창현(LX인터내셔널) △노승현(LX판토스) △이민희(LX하우시스) △김진하(LX하우시스) △고대협(LX세미콘) △한상철(LX MMA) 등 6명이 상무에서 전무로 승진했다.

또한, 올해 인사에서는 우수한 글로벌 역량과 함께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대응할 수 있는 사업가적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 인재들이 다수 임원으로 신규 선임됐다.

LX홀딩스 관계자는 "중국, 폴란드 및 인도네시아 등 글로벌 전략 거점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인재들이 승진했으며, 현장 엔지니어와 연구·개발(R&D) 부문 출신이 이번 임원 승진자의 절반가량인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다솜 기자 citizen@

# LG전자 '항공기 스마트객실' 순항

루프트한자·소프트웨어 4사 합작 비행기 내 디지털 사이니지·좌석 한데 묶은 '아레나' 콘텐츠 확충

합작사업을 통한 LG전자의 항공기 스마트객실 분야 진출에 가속이 붙었다. 루프트한자와의 기술 협력을 기반으로,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강화를 위해 콘텐츠 회사와도 적극적인 협업에 나섰다. 단계적 일상회복 기조로 글로벌 항공 사업이 재개발판을 펴는 상황에서 시장 선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LG전자와 루프트한자 자회사 루프트한자테크닉의 합작사 'AERQ'는 최근 글래디에이터(Gladiator), 인플라이트플릭스(InflightFlix), 미디어캐리어(MediaCarrier), 라이드(Rydes) 등 총 네 곳의 소프트웨어 회사와 협력을 발표했다.

이는 AERQ가 지난달 출시한 스마트객실 플랫폼인 '아레나(AERENA)' 콘텐츠 확충을 위한 것이다. 해당 협력을 통해 아

레나에서 △게임업계 뉴스, e스포츠 영상 등 고품질 게임 콘텐츠 △여행정보 △신문 △잡지 △탄소 중립 모빌리티 예약 시스템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아레나는 기내 디지털 사이니지와 좌석을 묶어 구성된 플랫폼으로, 항공사가 원활한 스마트객실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앞서 AERQ는 지난 9월엔 콘텐츠 기업 '어보브(ABOVE)'와 기내에서 미디어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자동화한 클라우드 기반 공급 시스템을 마련해 기존보다 저렴하면서 빠른 기내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LG전자 출신으로 AERQ에 합류한 이상수 공동 대표이사(Managing Director)는 "항공사는 광범위한(콘텐츠) 포트폴리오에서 승객들의 경험과 선호도에 최적화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며 "콘텐츠는 정보부터 게임, 오락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뿐 아니라 부가 수익도 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LG전자와 루프트한자 테크닉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기술과 루프트한자 그룹의 항공 관련 기술을 접목해 객실 사이니지, 스마트객실 솔루션 등을 개발하기 위해 2018년 10월 합작법인 설립을 결정했다.

OLED 패널은 기존 기내 디스플레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액정표시장치(LCD)에 비해 두께가 얇고, 구부리기 쉬워 승객용 단말기 화면을 비롯해 좌석, 객실 천장, 벽면, 창문 등 항공기 전 공간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다.

플랫폼 고도화를 위한 투자도 꾸준히 이어지는 중이다. LG전자는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까지 1년 반 동안 220억 원가량을 해당 합작법인(LG-LHT Passenger Solutions GmbH·LG-LHT Aircraft Solutions GmbH)에 투자했다.

올해 상반기 95억 원, 지난해 131억 원 수준이다. 아직까진 제품 개발 단계로, 실적 면에선 적자다.

설립 첫해 두 법인은 각각 99억 원, 60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냈고, 지난해에도 93억 원, 117억 원 수준의 적자가 났다.

노우리 기자 we1228@

## 동국제강 3분기 영업이익 2985억

전년 동기 대비 248.3% ↑ 제품 판매 단가 상승 영향

동국제강이 올해 3분기 약 3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동국제강은 2021년 3분기 연결기준 매출 1조9070억 원, 영업이익 2985억 원, 순이익 1987억 원을 기록했다 15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47.0%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248.3% 상승했다. 순이익은 같은 기간 대비 437.0% 늘었다.

연결기준 누적 매출은 5조1208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3.8%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154.5% 증가한 6149억 원을 기록했다. 순이익은 3742억 원을 기록해 전년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제품 판매 단가 상승으로 매출과 이익 모두 증가했다.

동국제강 측은 "프리미엄 컬러강판 판매 확대 및 신규 라인(S1CCL) 조기 안정화, 고난도 후판(극박재, LP-plate 등) 시장 개발, H형강 신제품(H700\*300) 상업화 등의 시장 개척 전략이 주효했다"라고 설명했다.

동국제강 브라질 CSP 제철소는 글로벌 철강 시장 호조에 따라 약 2378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2016년 가동 이래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이다.

CSP는 브라질 내수판매 제한 해지와 미국, 유럽 등 슬라브 수요처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 후호적인 영업환경이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4분기부터 컬러강판 사업 등 동국제강의 글로벌 성장 전략도 구체화 될 예정이다.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은 지난 8일 컬러강판 관련 매출을 2조 원으로 늘리고, 글로벌 100만 톤 생산 체제를 구축하는 'DK 컬러 비전 2030'을 발표한 바 있다. 객잔신 기자 jinsan@



TOMMY HILFIGER

www.zasperomall.com



11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 성남에너지 복합충전소에서 진행된 E1 Orange Plus 브랜드 론칭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이다숨 기자 citizen@

## E1 복합충전소 브랜드는 'E1 오렌지플러스'

E1은 미래형 복합충전소 브랜드 'E1 Orange Plus(오렌지 플러스)'를 론칭하고, 복합충전소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15일 밝혔다.

E1 Orange Plus가 적용되는 복합충전소는 기존의 LPG 연료를 충전하는 공간에서 나아가 수소·전기차 충전과 프리미엄 세차, 카페, 편의점 등 차량 관련 편의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E1은 11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 성남에너지 복합충전소에서 Orange Plus 브랜드 론칭 행사를 진행했다. 성남에너지는 Orange Plus 브랜드가 적용된 파일럿 스테이션으로 운영한다.

성남에너지는 기존 LPG 충전 시설 외에 시간당 수소차 5대를 연속으로 충전할 수 있는 수소 충전 시설과 100kW(킬로와트)급 전기차 급속 충전기 6기를 보유하고 있다. 향후 프리미엄 세차 시설과 카페 등 편의 시설을 차례로 오픈할 계획이다. 또 수소·전기차 충전 고객 대상 특화 멤버십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E1은 파일럿 스테이션 운영을 통해 새로운 브랜드 및 서비스를 테스트 검증하고 이를 현재 건설 중인 수소·전기 충전소에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다숨 기자 citizen@

## 한국타이어 'DJSI 월드지수' 6년 연속 편입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월드(DJSI 월드)'에 6년 연속 편입됐다.

한국타이어는 자동차 부품 산업(Auto Components)군에서 최고 점수를 획득해 글로벌 1위 기업에 오르며 '2021 DJSI 월드'에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2021 DJSI 월드'에는 평가 대상인 글로벌 상위 2544개 기업 가운데 12.7%인 322개 기업이 선정됐다. 국내 기업은 21 곳만 이름을 올렸다.

특히 자동차 부품 산업군에는 한국타이어를 비롯해 △현대모비스 △피렐리

(Pirelli) △발레오(Valeo) 등 4개 기업이 포함됐다. 한국타이어는 이 가운데 최고 점수를 획득했다.

한국타이어의 사회공헌과 인권, 공급망 관리, 연구·개발 혁신 등이 최고 점수 획득에 힘을 보탤었다.

한국타이어는 앞으로도 글로벌 선도 타이어 기업으로서 미래 성장을 이끌어가기 위해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사회공헌활동, 환경경영 등 다양한 활동을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관리하여 글로벌 최상위 수준의 지속가능 경영 능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준형 기자 junior@

+ 더 쉽고 편안한, 새로운 금융



# 최대 115만 5천원 연말보너스 더 받을 수 있어 나는 행복합니다

매달 연금계좌를 보며

노후를 기다리는 분의

사연입니다

신한은행 퇴직연금이 있어

벌써 행복하시다고요

연금을 평~생 내편으로  
신한 퇴직연금 IRP



연말 최대 **115만 5천원**  
돌려받는 세제혜택



연 700만원 한도,  
지방소득세 포함 **16.5% 세액 공제**  
단,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500만원 초과시 지방소득세 포함 13.2% 세액 공제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  
전 금융기관 연금저축계좌 합산 1,8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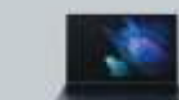
## '행복한 연금 준비, 나는 행복합니다' 개인형 IRP 이벤트

## 경품

## 이벤트 바로가기

**대상** 신한은행 IRP 신규가입 고객  
타금융기관 IRP 계좌이전 고객  
신한은행 IRP 추가납입 고객

**기간** 2021. 11. 1~2021. 12. 31 **당첨자 발표** 2022. 1. 14



삼성 갤럭시 프로 15인치 2명



LG 노트북 그램 15인치 3명



AIAI패드 에어 4세대 256G 5명



스타벅스 커피 쿠폰 10,000명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광고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경품 지급일까지 이벤트 조건이 유지된 계좌에 한하여 경품을 지급합니다. 경품 발송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동에 동의한 고객에 한하여 이벤트가 적용됩니다. 모바일 상품권은 당첨자 발표일에 신한은행에 등록된 핸드폰번호로 개별 MMS 발송됩니다. 연락처가 부정확하여 본인확인, 경품 배송 및 제세공과금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은 타인에게 발송 불가하며, 유효기간은 1개월로 유효기간 경과 후 재발송 불가합니다. 5만원 초과 경품에 대한 제세공과금 22%는 당첨에서 부담하며, 모바일 금액상품권 제공 건에 대하여는 2016.7.30부터 시행중인 은행법상 '재산상 이익제공 보고, 의무에 따라 보고됩니다. 퇴직연금 특별이익은 퇴직연금감각규정 제 16조 2항에 따라 연간 3만원 한도 내에서 제공되며, 초과시 경품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경품의 이미지는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으며, 경품은 시장상 동일 금액의 다른 상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당사는 해당 퇴직연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은 근로자 퇴직급여법상 퇴직급여 특별중도 인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중도해지 수수료는 없습니다. 단,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 또는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 시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로 과세되는 등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 기준 및 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세액공제의 기준과 면세액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를 참조하시거나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운용상품 중 원리금보장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운용상품 중 투자성 상품은 자산가격변동 등에 따라 원금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2021-12547-1호(2021.10.29~2023.10.29),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1-05031(2021.11.5~2022.11.4)

구분	신규 납입	수수료	운용 수수료	자산 수수료
퇴직금	연말	1억 미만	0.15%	0.20%
		1억 이상	0.15%	0.18%
	상구	1억 미만	0.25%	0.20%
		1억 이상	0.20%	0.18%
기타 납입	연말	1억 미만	0.05%	0.20%
		1억 이상	0.03%	0.18%
	상구	1억 미만	0.08%	0.20%
		1억 이상	0.07%	0.18%

(연간수수료율, 2021. 10. 29기준)

# “5G 보강” 목소리 거센데... 투자 소극적인 이통3사

이동통신 3사의 5세대(G) 이동통신 관련 망 투자 규모가 점차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동통신 3사는 연간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와 투자 규모가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15일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올해 3분기 3사 합산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또 다시 넘긴 반면 설비투자(CAPEX) 규모는 소폭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SK)의 올 3분기 누적 CAPEX 규모는 무선 기준 1조153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5% 감소했다. 같은 기간 KT는 누적 기준 17.9% 줄어든 1조4648억 원, LG유플러스는 8.4% 감소한 1조4638억 원을 각각 CAPEX에 투입했다.

5G 기지국 수도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5G 기지국 수는

SKT 누적 설비투자 21.5% ↓  
KT·LG유플러스도 규모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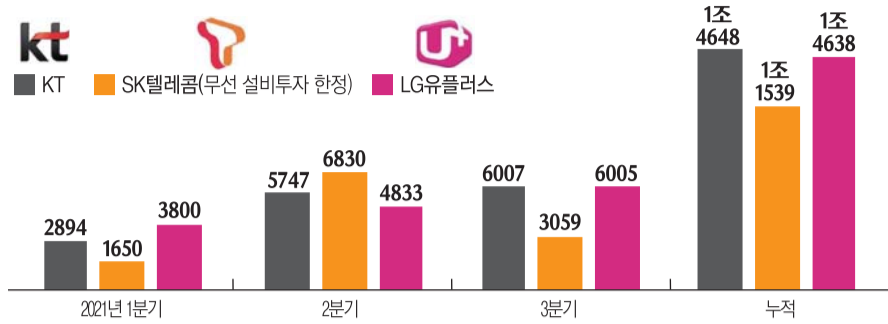
품질 논란에 KT 사태 설상가상  
정부·정치권 투자 압력 높아져

총 17만5577대로 지난해 말에 비해 약 3만5000대 정도만 늘었다. 28㎓ 5G 기지국의 경우 8월 말 기준 161대에 불과하다.

이동통신사의 CAPEX는 기지국과 기간망(백본) 등을 설비하는 데 쓰인다. 특히 도입 초기인 5G는 전파의 직진성이 강하고, 도달 거리가 짧아 기지국을 4G(LTE) 대비 많이 설치해야 한다. 앞선 세대 이동통신만큼의 품질을 누리기 위해선 더 많은 CAPEX가 필요하단 계산이 나온다.

5G 단독모드(SA)를 적극적으로 도입

이동통신 3사 설비투자 추이 (단위: 억 원)



하기 위해서라도 망 투자가 필연적인 부분도 있다. SA 방식을 사용하려면 이미 전국을 커버하고 있는 LTE 기지국과 혼용하는 대신 5G 네트워크 장비만 이용해야 하므로 5G 무선국을 더욱 늘려야 한다. 현재 이동통신 3사 중 SA 서비스를 개시한 곳은 KT 한 곳이다.

또 느린 속도로 소송까지 벌어지는 등 5G 품질에 대한 이용자 반발이 심한데다,

전국적인 유·무선 네트워크 장애까지 발생하면서 더 많은 설비투자가 필요하단 의견이 제시됐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5G 품질 논란과 KT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정치권에서 네트워크 투자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고 예측했다.

하지만 이동통신 3사는 올 연말까지 집행할 CAPEX 전체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김영진 KT 재무실장(전무)은 지난 9일 실적발표 이후 콘퍼런스콜에서 “CAPEX 관련해서는 코로나19와 반도체 공급 부족 등의 영향으로 집행이 연기된 부분이 있다”며 “그러나 지난해 3분기와 발주 기준으로 비교하면 누적 금액은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설비 과정 자체가 연간 기준으로 진행되는 만큼 4분기에 비용 집행이 몰리는 점을 고려해 달란 것이다. SKT 관계자도 “지난해 5G 전국망을 빠르게 도입하기 위해 많이 투자한 부분이 있어 분기별로 보면 줄어들어 보이지만 4분기 투자액을 보면 연간으로 줄어들지 않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LG유플러스는 “농어촌 5G 공동 구축을 포함해 내년까지 5G 망을 구축할 계획으로 CAPEX 규모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원 기자 leedw@

## “게임 개발 외길 30년, 새롭게 일어설 것”

‘포트리스’ 개발사 CCR, KNoock 데모데이 참여

모바일 게임 ‘포트리스M’ 출시  
매출 135억 ‘V자 반등’ 성공  
투자유치로 글로벌 진출 모색



11일 개최된 ‘KNoock 2021 제2차 데모데이’에서 윤석호 씨씨알컨텐츠트리 대표이사가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씨씨알컨텐츠트리

“포트리스라는 게임을 직접 만든 개발자이자 창업자입니다. 넥슨, 엔씨소프트와 어깨를 나란히 창업해 오로지 게임 개발 외길로 30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려고 합니다.” 추억의 국민 게임 ‘포트리스’ 개발자가 초기 스타트업 대표들 사이에 서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 11일 스타트업이 VC(벤처캐피털)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해 마련된 행사인 ‘콘텐츠 피칭플랫폼 KNoock’ 데모데이에 포트리스 IP 보유 및 모바일 게임 ‘포트리스M’ 개발 회사인 씨씨알컨텐츠트리(CCR)가 참여했다. 이날 심사위원인 VC들에 주목을 받아 대상 받은 기업은 CCR이었다.

이 오래된 게임사가 데모데이에 나온 이유는 분명했다. 투자 유치를 통해 다시 과거의 전성기로 돌아가 글로벌 진출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윤석호 CCR 대표이사는 “포

트리스M으로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밑바닥부터 시작해 작년 135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며 “이제 직접 서비스와 내년 여름부터 시작하는 글로벌 진출을 통해 300% 빠르게 성장하겠다”고 힘있게 말했다.

30년간 게임개발만 한 CCR에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CCR은 1995년 공대 출신 개발자들이 만든 벤처기업으로 1999년 ‘포트리스2’가 대성공을 거두며 단숨에 올라

인 게임 시장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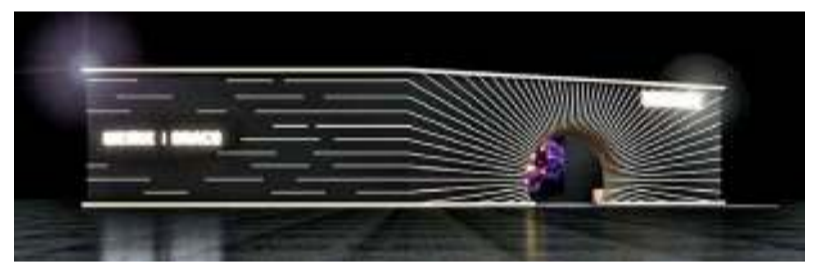
하지만 PC 버전만 몰두한 CCR은 모바일 게임 시장 변화에 대처하지 못했다. 또한, 수백억 원을 들여 신규 게임을 개발했지만, 포트리스와 같은 인기를 얻지 못했다. 2002년 185억 원을 기록한 CCR의 매출은 2014년 18억 원으로 곤두박질했다.

2018년 포트리스의 모바일 버전인 포트리스M이 출시되자 매출액은 ‘V자 반등’을 그리며 회복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 62%를 유지하며 작년 매출은 2003년 매출을 웃도는 135억 원을 기록했다. 8년간 포트리스 모바일게임을 개발한 결과였다.

윤 대표이사는 “40분간의 긴 플레이 시간을 3분으로 압축하고, 키보드 없이 정밀 조작할 수 있는 윈터치 기술을 특허 등록해 게임에 도입했다”며 “8년간의 개발 기간을 거쳐 재미와 긴장감을 더욱 높게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CCR은 게임 퍼블리셔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앞으로 독자 행보에 나설 계획이다. 게임 퍼블리셔는 개발사에서 개발한 게임을 판매하고 유통하는 기업이다. CCR은 지난달 게임 퍼블리셔 팽스카이와 계약을 종료하고 이달 19일부터 자체 서비스를 시작한다. 심민규 기자 wildboar@

## 국내 최대 게임박람회 ‘지스타 2021’ 내일 개막



17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게임박람회 지스타 2021 카카오게임즈 부스(위)와 위메이드 부스(아래) 모습. 사진제공 각사

## 하루 ‘사전예매 6000명’만 입장

카카오게임즈, 신작 4종 공개  
그라비티·크래프톤 부스 참여  
필어비스, 차세대 게임엔진 발표  
현장판매 없어...온라인방송 강화

신규 IP(지식재산권) 타이틀 4종을 선보인다.

크래프톤은 11일 글로벌 정식 출시한 모바일 배틀로얄 신작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를 선보인다. 18일부터 여러 셀럽과 크리에이터가 진행하는 ‘뉴배틀리지 매치’ 및 라이브 토크 등 각종 이벤트를 열 계획이다.

국내 최대 게임 박람회 ‘지스타 2021’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7일 부산 벡스코에서 21일까지 5일간 대대정을 가진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에 온라인으로 열린 지스타는 2년 만에 오프라인에서 관람객을 맞는다. 슬로건은 ‘Here comes the game again’(다시 만나 반갑습니다)이다.

B2B(기업 간 거래) 관에서는 위메이드 부스가 눈길을 끈다. 위메이드는 자사 대표작 ‘미르4’의 흥행 기반이 된 블록체인 플랫폼인 ‘위믹스’(WEMIX)와 토큰 ‘드래이코’(DRACO)를 주제로 부스를 구성했다.

메인 스폰서로 참가하는 카카오게임즈는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를 비롯해 액션 RPG ‘가디스 오더’, 수집형 RPG ‘에버 소울’, 모바일 RPG ‘가이던 테일즈’ 등 신작 4종을 공개한다.

필어비스는 붉은사막·도깨비 등 신작에 적용된 차세대 게임 엔진을 19일 공개한다. 고품질 필어비스 리드 엔진 프로그래머는 차세대 게임 엔진 사용 기술과 관련 주력 부분 등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카카오게임즈는 “출품작 별 특징을 담아 ‘브랜드 존’과 ‘플레이 체험 존’으로 나눠 부스를 꾸몄다”며 “현장 이벤트를 통한 특별한 경험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지스타에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대형 ‘빅3’는 처음으로 불참한다. 기존 빅3의 자리를 뜨는 2K(카카오게임즈, 크래프톤)가 채워, 게임 업계의 세대교체를 보여줄 거란 기대가 나온다.

그라비티와 크래프톤도 B2C(기업 소비자간 거래) 부스로 참여한다. 역대 가장 많은 게임작을 출품하는 그라비티는 자사 대표작 ‘라그나로크’의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현장판매 없이 사전 예매로 하루 6000명만 입장 가능하다. 대신 지스타는 현장 방문이 어려운 팬들을 위해 온라인 방송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유리 기자 inglass@

## 중기부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모집

14개 시·도와 공동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14개 시·도와 손잡고 지역 주력산업 성장 이끌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역혁신 선도기업은 정부가 지역균형 뉴딜 촉진을 위해 마련한 ‘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전략’의 후속 조치다. 우수한 혁신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집중 육성해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게

하려고 추진됐다. 중기부와 14개 시·도가 함께 추진하는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프로젝트’는 내년까지 100개사 발굴을 목표로 한다. 이번 1차 공모를 통해 50개사를 먼저 선정하고, 내년 하반기에 50개사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각 지역 스타기업, 규제자유특구 소재 사업자 등 지역 산업 생태계를 견인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에 나서는 기업은 지역 중소기업

간 협업체의 주체여야 하고, 고용안정, 수출증대 등 지역의 산업과 경제에 기여하는 등의 기본 역량을 갖춰야 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기술개발 자금으로 최대 6년(3+3년) 동안 20억 원을 지원한다. 판로는 물론 인력, 자금, 투자 등 메뉴판식 지역 자율 프로그램을 운영해 협업과제에 따라 맞춤형으로 집중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지역 테크노파크(TP) 누리집을 통해 내달 8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선도기업은 평가와 검증을 거쳐 내년 1월 최종 선정된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 중진공 ‘수출길 여는 성공 키워드’ 제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비대면·온라인 수출 마케팅 강화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등 글로벌 스탠다드 이행 등을 중소기업의 수출길을 여는 성공 키워드로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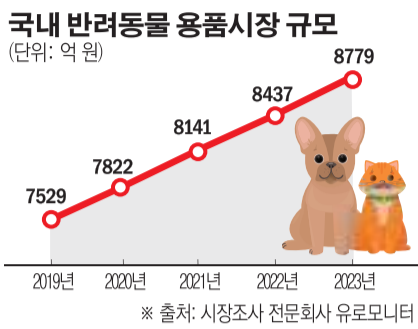
중진공은 정책 뉴스레터 ‘KOSME정책 @知(이지)’ 제4호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호는 ‘위기를 기회로, 중기(中企) 수출길 여는 성공 키워드’라는 주제를 특집기사로 다뤘다. 중진공은 중소기업 수

출 환경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물류, 원자재 가격, 부품 수급 △테이퍼링, 환율 상승 등 글로벌 경제시장 불확실성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등을 꼽았다. 이에 비대면·온라인 수출 마케팅 강화와 ESG 경영 등 글로벌 스탠다드 이행,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 등을 제시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 아모레퍼시픽 '펫샴푸' 출시표 반려동물에 빠진 화장품 업계

**'푸푸몬스터' 론칭 샴푸 2종 출시**  
LG생진 '시리우스'·애경 '휘슬'  
반려동물 용품 2023년 8779억



아모레퍼시픽이 반려동물 시장에 출시 표를 던졌다. 반려동물을 물건이 아닌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펫팜족'이 늘면서 반려인들이 모인 사내 스타트업이 브랜드 론칭을 주도하면서다. 국내 반려동물 용품 시장이 몸집을 불리면서 화장품업계도 앞다퉈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15일 시장조사 전문회사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용품 시장 규모(고양이 모래, 영양제 및 미용용품 등 푸드 및 서비스 제외)는 올해 8141억 원으로 집계되며 8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2023년 8779억 원으로 2019년과 비교해 16% 커질 전망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이날 반려동물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푸푸몬스터(POOPOO MONSTER)를 론칭하며 반려동물 시장에 처음 진출했다고 밝혔다. 푸푸몬스터는 아모레퍼시픽 산하 사내 스타트업 제도인 린스타트업을 통해 만들어졌다. 급성정하는 펫케어 시장 진출 주제로 공모 선정된 사내 반려인들이 머리를 맞댔다.

비건 펫샴푸 2종으로 첫 발을 댄 푸푸몬스터는 앞으로 위생, 세정용품 중심으로 브랜드 확장을 꾀한다. 유항 비건 펫샴푸의 경우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향료만을 넣어 반려동물이 피모를 활야도 무해하다. 강아지, 고양이를 위한 무항샴푸도 함께 준비했

다. 고양이의 목욕주기가 긴 점을 고려해 소용량 파우치 타입으로 구성됐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펫푸드 진출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지만, 반려동물 시장이 성장세에 있고, 동종업계가 펫 케어 브랜드로 시작해 펫 푸드까지 영역을 확장한 점을 감안하면 반려동물 전용 식용제품도 나올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앞서 아모레퍼시픽은 자회사 이니스프리에서 디어펫샴푸를 내놨다. 당시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피모 고민에 맞춰 샴푸를 선택할 수 있는 '디어펫 딥클렌징 샴푸', '디어펫 너리싱 샴푸' 등을 내놓은 바 있다. 디어펫샴푸가 샴푸전용 브랜드라면 푸푸몬스터는 라이프스타일 종합 브랜드라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일찌감치 반려동물 시장에 진출한 LG생활건강은 종합 펫케어 브랜드 '시리우스'를 운영 중이다. 샴푸, 컨디셔너, 탈취제 등이 포함된 시리우스 그룹(옛 '오 시리우스') 브랜드를 앞세워 제품을 출시한 LG생활건강은 이듬해 펫 푸드 브랜드 '시리우스 윌'을 론칭하며 반려동물 대상 종합 프리미엄 유기농 브랜드를 구축했다.

시리우스 윌은 반려견에게 유해할 수 있

는 농약, GMO 유전자 변형식품, 인공 향료, 육골분 등의 부속물을 배제한 순수 정육만을 사용했다. 시리우스 그룹은 반려견의 피부 고민별로 맞춤 케어가 가능한 컨셉으로 현재 샴푸(2종)와 컨디셔너, 탈취제 등이 판매되고 있다.

LG생활건강은 이날 그룹의 프리미엄 라인인 '시리우스 펫'도 출시했다. 한국 최초 비건인증원에 등재된 제품이며, 한국 비건인증원 동물용 의약품 1-3호 모두 시리우스 펫 제품이다. 동물실험을 일절 진행하지 않은 펫 제품은 반려견을 위한 100% 식물성첨가물 성분, 식품에 사용되는 원료만 사용한 샴푸다.

시리우스의 주력 제품은 스테이크 스틱 제품(비프·양고기·연어)과 훈제 스테이크 제품(비프·치킨·오리)으로 GS25, CU 등 주요 편의점과 올리브영, 알라블라 등 H&B스토어에서 판매 중이다. 1개당 10kcal 남짓인 반려동물 체중 관리 간식 '언더텐'도 인기다.

애경산업도 2016년 '휘슬'로 반려동물 시장에 진출한 이래 샴푸 등 위생용품에서 시작해 현재 고양이 모래, 배변 패드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했다. 주력 용품은 샴푸, 고양이 모래 등으로 지난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시장 환경에서도 단일 브랜드 매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100% 이상을 기록했다.

애경산업 관계자는 "펫팜족이 꾸준히 늘고 있는 데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집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면서 관련 시장도 당분간 커질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올해 매출 신장률 역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heyji@



**신세계백화점 "행복한 연말 보내세요"** 신세계백화점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자아내는 외관 디자인과 함께 3분기방의 스토리가 있는 미디어 파사드를 내년 1월 21일까지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140만 개 LED칩을 사용한 크리스마스 외관 스크린에는 움직이는 리본 위에서 외출타기 쇼에 이어 다양한 크리스마스 아이템 등이 소개된다. 영상의 마지막에는 '매지컬 모먼트 포 유(Magical moments for you)'라는 메시지를 통해 행복한 연말을 기원한다. 사진제공 신세계백화점

## '블루보틀x제주맥주' 연말 특별한 맥주

GS25 '배럴 시리즈' 선착순 예약

GS25는 블루보틀커피와 제주맥주의 콜라보 한정판 주류인 '제주맥주 배럴 시리즈: 블루보틀커피 에디션'을 단독으로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배럴시리즈는 버번 위스키를 담았던 오크통에서 6개월 이상 숙성시킨 임페리얼 스타우트 맥주에 블루보틀커피의 대표 블렌딩 '벨라도노반'을 드라이호핑하는 공정을 추가한 프리미엄 맥주다.

알코올 도수는 13.5도이며 가격은 3만 3000원이다.

배럴시리즈는 22일부터 전국 GS25와 GS리테일의 더팝 모바일 앱 내의 와인25플러스를 통해 선착순 예약할 수 있다. 원하는 GS25 매장에서 다음 달 1일 이후부



터 받을 수 있다. 한국중 GS리테일 음용기획팀 MD는 "장인정신이 담긴 배럴에이징 맥주는 연말 연초 홈파티를 특별한 자리로 만들어주는 아이템으로 제격"이라며 "맥주에 진심을 담아 미식 문화 저변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는 제주맥주와 앞으로도 전략적 제휴를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 위드 코로나에 기대감 'UP'

## '여행객 붐물' 유통업계, 선점 경쟁 후끈

NS홈쇼핑·GS샵 해외여행 방송 재개  
신라·신세계 면세점 할인쿠폰 등 공세



GS샵이 해외여행 상품으로 선보인 터키 이스탄불 전경.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이 시작되면서 억눌려있던 보복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살아날 조짐을 보이자 홈쇼핑, 백화점, 면세점 등 유통업계가 다양한 프로모션을 준비하면서 시장 선점에 공을 들이고 있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위드코로나와 함께 여행 수요가 살아나면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S샵은 지난해 2월 이후 중단한 해외여행 패키지 상품 판매 방송을 14일 1년 9개월 만에 재개했다. 이번 상품은 내년 3월 28일까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스페인, 포르투갈, 터키 일주 패키지 여행 상품이다. 여행 희망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전우정 GS샵 서비스팀 MD는 "이번 방송을 시작으로 여행 전문 프로그램 '쇼미더트래블'을 부활시켜 21일부터 매주 일요일 다양한 여행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NS홈쇼핑도 이달 약 5개월 만에 해외여행 상품 방송을 재개했다. 6일 '괌 윈워드 비치 리조트 숙박권' 방송을 진행했다. 내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홈앤쇼핑도 6일 '터키 7박8일 패키지' 상품을 출시해 4개월 만에 해외여행 상품을 다시 판매했다.

인터파크투어 역시 대한항공 및 괌-하와이 관광경과 연계한 특가 프로모션으로 모객에 나섰다.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 출발까지 티웨이 항공 방콕 노선 및 에어서울 괌 노선은 최대 3만 원에서 7만 원까지

할인해주는 단독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면세점 업계도 고객 모시기에 나선다. 신라면세점은 여행 플랫폼과 협업으로 본격적인 해외 여행을 준비하는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시작한다.

이를 위해 여행 플랫폼인 'KKday'와 제휴해 해외 여행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신라면세점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100만 원 적립금과 13만5000 신라리워즈포인트 등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또 해외 여행을 준비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골드 멤버십과 포인트 등을 증정하는 톤권 프로모션도 함께 실시한다.

신세계면세점은 백신접종자에게 신세계면세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썸머니와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28일까지 진행한다.

호텔 업계도 침체됐던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전망하며 다양한 프로모션과 패키지 상품을 내놓고 있다.

롯데호텔은 소상공인과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관광 콘텐츠와 안심 여행을 홍보하기 위해 '조인 더 마켓 투어'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서울신라호텔은 'MZ세대'의 재테크 방식인 '아트테크'와 접목한 패키지 '폴 인 아트(Fall in Art)'를 선보인다. 구성현 기자 carlove@

## '출근룩 불티' 홈쇼핑, 겨울 의류 대전

GS샵 패션 부문 취급액 103% ↑  
CJ온스타일·롯데 의류 집중 편성



최근 주요 홈쇼핑 업체들의 패션 주문량이 크게 늘어났다.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정상 출근에 대비해 출근룩을 찾는 사람들의 손길이 많아진 데 따른 영향이다. 소비심리가 회복되는 만큼 홈쇼핑 업체들은 다양한 의류를 선보이며 소비자 마음 잡기에 나선다.

1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TV 홈쇼핑 GS샵의 지난달 패션 부문 취급액은 전월 대비 103% 상승했다. 같은 기간 롯데홈쇼핑도 패션 주문 수량이 30% 늘었다. CJ온스타일의 지난달 패션 주문 수량 역시 전월 대비 약 11% 증가했다.

의류 주문이 증가한 것은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출근룩이 필요한 소비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지난달 말부터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 점도 매출에 영향을 미쳤다.

의류 매출 상승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위드 코로나로 소비심리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CJ온스타일이 9일 소개한 30만 원대 '이태리 구아벨로 울 수트'〈사진〉는 6분 만에 733장 판매됐다. 같은 날 선보인 50만 원대의 '이태리 브레스크 프레지던트 남성 코트'는 30분 만에 4억 9000만 원의 주문 금액을 돌파했다.

CJ온스타일 관계자는 "최근 소비심리 회복과 맞물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보다 프리미엄급 비즈니스 패션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고 했다.

늘어난 의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홈쇼핑들은 겨울 의류 판매 방송을 집중적으로 편성한다.

GS샵은 16일 오전 8시 15분 '마이클 바스티안 폭스퍼 구스다운'을 판매한다. 구스다운은 겨울철 보온을 위한 프리미엄 충전재로 중량 대비 보온 기능이 상당하다. 소매 안쪽에는 립단을 이중으로 덧대 찬바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준다. 색상은 검정과 차콜, 카키, 라이트 베이지 등 4종이다.

롯데홈쇼핑은 16일 방송에서 '버버리 라임하우스다운 롱 패딩'을 내놓는다. 나일론 소재와 폴리에스터 소재를 더해 가벼움을 유지하면서 따뜻한 것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CJ온스타일은 이날 오전 8시 15분 '남성용 케이 블 카라 폴로니트'를 선보였다. 카라 니트는 스탠다드한 핏으로 착용할 수 있어 비즈니스 캐주얼룩으로 손쉽게 연출할 수 있다. 후니컬 금속단추를 사용해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구현했다. KB국민 카드로 결제하면 5% 할인도 추가된다.

16일 오후 7시 35분에는 브룩스브라더스의 '테크 헝가리 구스다운'을 소개한다. 이 제품은 방수, 방풍, 발수 등 3중 기능성을 갖춘 이태리 마조끼사의 원단을 사용했다. 구스다운이지만 비즈니스 룩 아우터로 제격이며 강력한 보온성과 가벼운 착용감을 자랑한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 급물살 탄 주택 양도세 개편... '거래 한파' 녹일까

국회가 주택 양도소득세(양도세) 개편 논의에 착수하면서 얼어붙은 거래시장에 훈풍이 불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양도세 개편의 핵심은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양도세 부담이 줄면 매물 잠김 현상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양도세 부담 때문에 매도를 망설였던 집주인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부담은 여전히 한 만큼 거래 한파가 들이닥친 서울·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을 녹이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오전 조세소위를 열고 양도소득세 개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했다.

논의의 핵심은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이다. 현행 시세 9억 원인 고가주택 기준을 12억 원으로 올려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고 거래 활성화도 꾀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은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야당 역시 기준 상향에 공감하고 있어 해당 법

1주택자 비과세 기준 9억→12억 국회, 소득세법 개정안 논의 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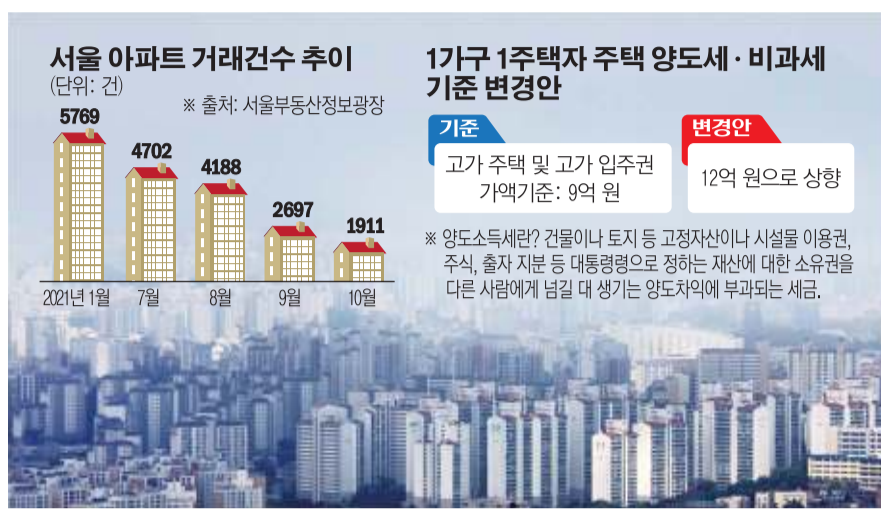
"매도 대기 물건, 시장에 풀릴 것" 서울 중심으로 거래량 증가 전망

다주택자 양도세 증과는 그대로 "시장 영향 크지 않을 것" 분석도

안은 이르면 연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

양도세는 건물이나 토지 등 고정자산이나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발생한 양도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보유세라면 양도세는 거래세에 해당한다.

1주택자 양도세 부과 기준이 완화되면 서울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다.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인 시세 9억 원을 초과하



는 아파트가 많아졌다. 이에 양도세 부담을 느낀 1주택자들이 매도를 포기하면서 공급(매물) 부족과 그에 따른 집값 상승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이 상향되면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기를 기다리던 매도 대기 물건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며 "비과세 기준이 12억 원으로 높아지면 지방보다는 고가주택이 밀집된 서울에서 정

책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양도세 부과 기준 상향 대상이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에 한정된 만큼 시장 전체에 미칠 파급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1주택자 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는 일부 '갈아타기' (기존 주택보다 더 큰 평형으로 집을 옮기는 일) 수요가 늘어나는 정도라면 영향을 줄 것"이라며 "여당이 정말 거래량을

늘리고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분도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합 랩장 역시 "다주택자 매물 출현을 끌어낼 다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추가나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인하는 정치권에서 다루지 않고 있어 이번 1주택 양도세 완화만으로는 시장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부담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매매 대신 증여를 선택하고 있다. 3주택자 기준 양도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최고 82.5%다. 반면 증여세율은 50%다. 양도세를 부담하고 파느니 증여세를 내고 물려주는 심리가 확산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1만80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7364건에 이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697건으로 1월 5769건 대비 절반 이하로 줄었다. 지난해 9월 거래 건수(3775건)와 비교해도 1000건 이상 감소하는 등 거래 절벽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정용욱 기자 dragon@

## "KTX는 흥행 보증수표" 지방 역세권 단지 '완판' 행진

<주택>

### 수도권 매매심리 두 달 연속 꺾여

대출규제·금리인상 영향

'신진주역세권 우미린' 아파트 2만명 몰려 전가구 1순위 마감 오송역 '파라곤 센트럴시티 2차' 평균 청약경쟁률 107대 1 기록

단지명(위치)	평균경쟁률	인근 KTX역
신진주역세권 B-1블록 우미린 (경남 진주시 가좌동 일대)	57.25대 1	KTX진주역
오송역 파라곤 센트럴시티 2차 (충북 청주시 흥덕구 일대)	107대 1	KTX오송역
교통 하늘채 스파이크 (강원 강릉시 교통 일대)	67.92대 1	KTX강릉역

서울·수도권은 물론 지방 청약시장에서도 '역세권 아파트' 인기가 치솟고 있다. 최근 지방의 KTX역 인근에 지어지는 단지들은 분양만 했다 하면 '완판' (100% 분양 계약)되기 일쑤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경남 진주시 KTX진주역 인근에 들어서는 '신진주역세권 우미린' 아파트는 12일 진행된 청약 접수에서 전 가구 1순위 마감됐다. 전체 271가구 모집에 2만1871명이 몰리면서 평균 57.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달 인근 또 다른 아파트 '신진주역세권 데시앙'의 경쟁률 37.09대 1

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면적 128㎡에서 무려 135대 1에 달했다.

충북 청주시 KTX오송역 인근에 들어서는 '오송역 파라곤 센트럴시티 2차'도 청약 경쟁이 치열했다. 지난달 진행된 청약에서 전체 1673가구 모집에 무려 18만여 명이 청약통장을 던졌다. 평균 청약 경쟁률이 107대 1에 달했다.

전국에서 KTX역을 깬 아파트 단지들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KTX역이

완성되면 역 인근에서 'KTX역세권 개발 사업'도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주변 부동산 시장엔 대형 호재로 작용할 만하다. KTX역세권 개발사업은 철도역과 그 주변을 개발해 주거·상업·문화·업무시설 등 새로운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을 말한다.

KTX천안아산역세권 개발사업이 대표적인 성공사례다. 충남 아산시 방배읍 일대는 2004년 KTX천안아산역이 만들어진 뒤 대규모 상업시설 및 주상복합아파트 등이 들어서면서 천안의 '노른자 땅'이 되었다. 현재는 2024년까지 전체 예산 3822억 원을 투입해 의료 종합지원센터 등을 짓는 R&D 집적지구 개발사업도 진행 중이다.

역세권 중심의 도시개발사업은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 7월 비수도권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11개 노선을 새로 반영하면서다. 이 중 '부산-양산-울

산 광역철도',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등 권역별로 1개씩 총 5개 노선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하는 등 사업을 빠르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지방에선 무엇보다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특히 KTX 같은 광역 교통망은 주변 개발까지 유도하기 때문에 하나의 미니 신도시급 주거촌 조성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역세권 아파트가 인기를 끄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통망 개선이라는 호재 때문이기도 하지만 최근 수도권 아파트 규제로 인한 '반사효과'가 작용한 측면도 있다"며 "청약 경쟁률이 주택의 가치를 모두 대변한다고 보긴 어려운 만큼 투자에 보다 신중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박민용 기자 pmw7001@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 해법 못 찾는 '왕릉뷰 아파트' ... 입주 예정자는 "죽을 맛"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면서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나왔게 생겼어요. 불면증에 약까지 먹고 있어요."

'왕릉뷰 아파트' 논란에 휘말리며 철거 위기에 내몰린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단지들이 이렇다 할 해답을 찾지 못한 채 행정기관과 건설사들의 '네 탓 공방'으로 치달고 있다. 이번 사안의 책임이 가려지지 못하는 사이 길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놓인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

문화재청 명령으로 공사가 중단된 검단신도시 '대광로제비암 라포레'·'에미지 트리플에듀'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14일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에서 건설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금성백조 관계자는 "편파적인 시물

"철거해야" vs "절대 수용 못해" 문화재청-건설사 팽팽히 맞서 입주민들 "해결안 빨리 내놔야"

레이션 결과가 나오지 못하게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다"며 "문화재청은 철거를 고집하고 있으나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예정된 시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7월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존지역에 포함되는 아파트 신축 공사에 대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조선 왕릉인 김포 장릉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에서 허가 없이 공사를 강행했다는 이유에서



경기 김포시 장릉에 있는 무덤 사이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이 보인다. 연합뉴스

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500m 내에 선 건축물 높이가 20m를 넘으면 문화재청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일각에서는 아파트 일부 동을 철거하거나 나무를 심어 아파트를 가리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잔존 건물

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나무 또한 구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입주 예정자 A씨는 "이러나저러나 답이 안 나오는 것은 마찬가지니 문화재청 발표만 숨죽여 기다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문화재위원회는 소위원회 열고 추가 검토를 한 뒤 문화재위원회에서 이번 사안과 관련한 최종 해법을 도출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지난달 아파트 외벽 색상 교체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사 개선안을 보류한 이후 아직 새 개선안을 제출받지 못했다"며 "건설사로부터 자료를 받게 되면 이르면 일주일 내로 최종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 toto@

이처럼 수도권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 지수가 하락한 것은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8월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달에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더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대출 규제마저 강화하면서 주택 매매시장의 매수심리가 꺾였다는 분석이다.

수도권 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도 두 달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수도권 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8월 121.9에서 9월 120.9, 10월 110.9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서울 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최근 3개월간 122.9(8월)→121.4(9월)→111.2(10월)를 기록했고, 경기도는 121.6(8월)→120.5(9월)→110.8(10월)을 나타냈다. 인천은 8월 121.1에서 9월 121.8로 소폭 올랐으나 10월 111.0으로 다시 떨어졌다. 이재영 기자 lry0403@

# “쉬운 문제부터 하나씩... 생활습관 유지로 컨디션 관리”

## 수능 D-2

코로나 팬데믹 후 두 번째 수능  
실전처럼 문제 풀고 복습 집중  
확진 수험생 시험장 별도 마련  
지하철·버스 늘려... 추위 없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2일 앞으로 다가왔다. 50만9821명의 수험생은 18일 전국 1394개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른다.

이번 수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두 번째로 치러지는 시험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자가 격리자뿐 아니라 확진 학생도 응시할 수 있다. 입시 전문가들은 “남은 기간 균형 잡힌 생활습관을 유지하면서 마무리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7일까지 수능 문제지와 답안

지를 전국 86개 시험지구에 배부한다고 15일 밝혔다. 시험지구로 옮겨진 문제지와 답안지는 수능 전날까지 별도의 장소에 보관되고 수능 당일 아침 해당 시험장으로 운반된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383명의 확진 수험생을 수용할 수 있는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 시험장을 준비했다. 확산세가 급격히 커지면 추가로 시험장을 확보할 방침이다. 자가격리자용 별도 시험장은 전국 112개소 620개 실이 있어 최대 3099명이 응시 가능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4일부터 9일까지 확진된 수험생은 66명이며 자가격리 대상자는 12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역지침에 수능 날이나 논술·면접 등 대학별고사도 교문 앞 응원을 자제하도록 요청하고 있다”며 “수험생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들은 합격 기도를 모으거나 사람이 많은 장소를 찾는 일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입시 전문가들은 남은 기간에는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기보다 복습에 집중하고 영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의 한 학원에서 수험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역별 시험 시간대로 실전처럼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도움된다고 입을 모았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수능 당일에는 긴장감과 불안감으로 인해 평소보다 시험 시간이 짧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순서대로 풀기보다는 쉬운 문제부터 빠르게 풀어나가 고난도 문항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분한 수면과 균형 잡힌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외출을 자제하고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이영덕 대성학력연구소장은 “수능 전날에는 정해진 시험 스케줄에 따라 학습하면서 불안감은 달

라고 적절한 스트레칭이나 산책 등을 통해 심장과 뇌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수능 당일 서울 지하철의 오전 집중배차시간을 오전 7~9시에서 오전 6~10시로 2시간 늘리고 연장 시간대에 지하철을 28회 추가 운행한다. 시내·마을버스는 오전 6~8시10분까지 최소배차간격으로 운행한다. 택시는 오전 4시부터 정오까지 택시 부제를 일시 해제해 1만 7745대가 추가 운행할 수 있도록 한다.

‘수험생수송지원차량’ 안내문을 부착한 민·관용 차량 760대도 수험장 인근 지하철역, 버스 정류소, 주요 지점에 대기할 예정이다. 수험생이 승차를 요청하면 수험장까지 무료로 데려다준다.

기상청에 따르면 수능 당일에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으로 전망돼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부지방에는 약한 비가 내리고 일교차가 커 수험생의 건강관리에 주위가 필요하다.

손현경 기자 son89@



청계광장 누비는 ‘아트 따릉이’ 15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포르세 드림 아트 따릉이’ 공개 시승회에서 참석자들이 시승하고 있다. 시민공모로 선정된 ‘아트 따릉이’는 총 356대로, 16일부터 기존 따릉이 대여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연합뉴스

## 법원 ‘일산대교 무료통행’ 다시 제동

법원이 일산대교(주)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양순주 부장판사)는 일산대교(주)가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이 일산대교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하고 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시작했다.

이에 불복한 일산대교 측은 경기도 처분이 위법하다며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법원은 1차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경기도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인 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법원이 정하는 상당한 보상금액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계속 이어가겠다”며 2차 공익처분을 했다.

일산대교 측은 재차 불복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이 다시 일산대교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산대교 무료화는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일산대교 유료화 복귀는 이르면 16일 0시부터 가능하지만 시스템 점검 등을 고려하면 주중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일산대교 무료화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 당시 추진한 사업이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직 사퇴 직전 일산대교 공익처분을 마지막으로 결재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 檢 ‘대장동 수사’ 분수령... 로비 의혹 규명 집중

김만배·남욱 22일 구속기간 만료  
50억 퇴직금 대가성 입증해야  
‘50억 클럽’ 수사 진행 가능성도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으로 구속된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씨와 남욱(전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의 구속만료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수사팀은 남은 기간 이번 수사의 또다른 큰 줄기인 로비 의혹 규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선 정치권 등의 거세지는 ‘특별검사 도입’ 압박에 맞서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중대한 시점이라는 시각이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최근 김 씨를 구속 이후 세 번째 소환해 정치권과 법조계 로비 의혹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4일 구속된 김 씨와 남 변호사의 구

속기간 만료일은 22일이다. 구속기간의 절반을 넘어서 만큼 검찰은 서둘러 대장동 로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자들을 줄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우선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 전에 광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 대한 퇴직금 ‘50억 원’의 대가성을 입증해야 한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광 전 의원으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받은 대가로 광 씨를 통해 거액의 ‘뇌물’을 준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애초 김 씨에 대한 1차 구속영장에서 50억 원을 뇌물로 적시했으나 기각된 후 2차 영장에는 이 부분을 제외했다.

검찰은 지난달 광 씨를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조만간 광 전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조사도 곧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특검은 2016년 특검에 임명되기 전까지 수개월 동안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했다.

그의 딸은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최근 퇴직했고 회사가 보유한 대장동 미분양 아파트 1채를 분양받았다.

검찰은 박 전 특검 로펌 소속 조모 변호사가 전화동인 6호 대표를 맡는 등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사업 깊숙이 관여돼 있다고 보고 있다.

화천대유 고문단에 이름이 포함된 권순일 전 대법관도 수사 대상이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당시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의견을 낸 뒤 화천대유 법률고문을 맡았다. 그가 고문료로 1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며 ‘재판거래’ 의혹이 나왔다.

검찰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폭로한 대장동 사업 ‘50억 클럽’ 멤버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는 박 전 특검과 권 전 대법관 외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언론이 흥모 씨 등이 포함됐다.

이수진 기자 abc123@

##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특허소송 코웨이에 승소

청호나이스가 얼음정수기를 둘러싼 코웨이의 특허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특허 등록 무효소송을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청호나이스는 2014년 코웨이를 상대로 얼음정수기 특허기술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서울중앙지법은 청호나이스

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웨이에 관련 제품 설비를 폐기하고 1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코웨이는 청호나이스의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고 특허법원은 코웨이의 손을 들어줬다.

청호나이스는 발명 내용과 설계도면을 구체화하는 등 특허 내용 일부를 변경하는 정정청구로 대응했고 지난해 8월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구제기 기자 sunrise@

## 서울시, 2년 만에 개인택시 3부제 해제

서울시는 ‘위드 코로나’ 전환과 함께 식당 등 영업시간 해제로 택시 승차난이 가중함에 따라 심야 택시 공급 확대를 위한 특별대책을 가동한다고 15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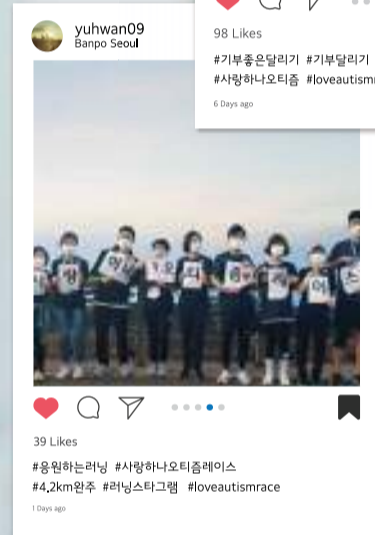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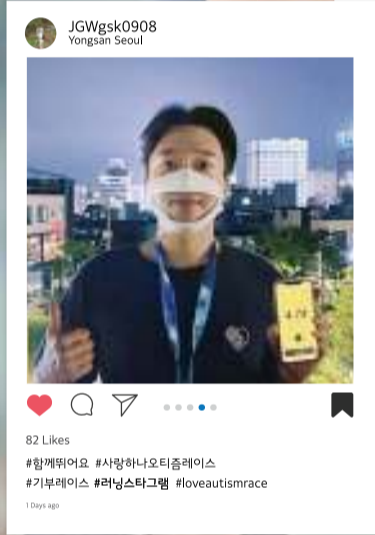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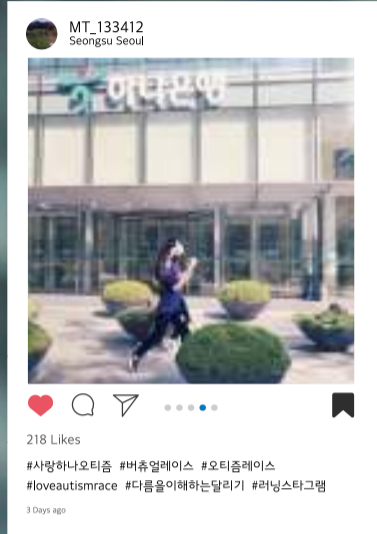
심야 승차난 해소 특별대책의 주요 내용은 △오후 9시~오전 4시 개인택시 부제해제 및 무단휴업 행정조치 △법인택시 기사 채용박람회 개최 △심야 ‘올빼미버스’ 증차 및 신규노선 운행 △승객 콜라태우기 등 승차거부 특별단속 △택시업계 자발적

승차지원단 운영 등이다.

이번 특별대책 핵심인 개인택시 부제해제는 2019년 이후 2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다. 16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현재 3부제로 운영되는 개인택시 부제를 일시적으로 해제한다.

서울시는 승차난이 심한 오후 9시~다음날 새벽 4시까지 부제를 해제하면 약 2000대 택시가 추가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인석 기자 mystic@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 하나금융그룹 국내외 임직원 530여 명 레이스 참가

# 홀로 설 수 있도록 함께 달립니다

자폐인과 당신이 서로 다르지 않음을 알아가는  
4.2km의 달리는 응원석, '사랑, 하나, 오티즘 레이스'  
세상을 향한 그들의 도전이 외롭고 힘들지 않도록  
하나금융그룹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 하나, 오티즘 레이스

하나은행과 한국자폐인사랑협회가 자폐성장애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위해 마련한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 청년 취업 도우미 자임하고 나선 허인·윤종원

〈KB국민은행장〉 〈IBK기업은행장〉

## 국민·기업銀, 온라인 취업박람회 잇따라 개최

올해 두번째 'KB굿잡 온택트 박람회' 구직자 18만명 참여  
IBK는 '디지털 뉴딜' 주제, 혁신기업 대상 어제부터 3주간

허인 KB국민은행장과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이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를 통해 청년 취업 도우미를 자처하고 나섰다.

KB국민은행은 KB굿잡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2021 제2차 KB굿잡 온택트 취업박람회'가 종료됐다고 15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중소기업의 인재채용 기회를 마련하고 구직자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를 개최해왔다. 올해로 20번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비대면 방식 온택트 취업박람회로 진행됐다. 350여개 기업과 18만 명에 이르는 구직자가 참여했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우량기업과 미래성장성이 높은 구인기업의 참가 확대 및 구

직자를 위한 취업지원 콘텐츠를 보강해 진행됐다. 화상면접 대비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모의면접 체험', 취업생의 집중과 안정을 돕기 위한 ASMR 콘텐츠, MBTI 직무추천 영상 제공 및 맞춤형 채용공고 추천 등 다양한 콘텐츠를 도입해 호평을 받았다.

IBK기업은행은 15일부터 3주간 한국장학재단, 한국인공지능협회와 공동으로 채용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2021 디지털뉴딜 온라인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

디지털뉴딜을 선도하는 혁신기업이 참여하는 이번 박람회는 '데이터·네트워크, 인공지능, SOC 디지털화' 3개의 테마로 온라인 채용관이 운영된다. 네이비시스



허인 KB국민은행장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템, 지엠티, 라이브셀인스트루먼트 등 100여개 우수기업이 참여해 채용을 진행한다. 박람회 참가 기업에는 AI시스템을 활용한 서류심사, 면접전형, 인적성·직무검사 등 전 과정 AI 채용솔루션을 제공한다.

구직자는 AI자기소개서 분석과 이력서 컨설팅, 현직자 멘토링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고 면접

에 참여한 구직자 중 선착순 300명에게는 면접지원금을 제공한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디지털 뉴딜은 산업과 경제 전반의 대전환 정책으로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며 "AI, 클라우드, ICT 등 디지털뉴딜을 대표하는 혁신기업과 청년들에게 일자리 매칭을 위한 기회와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범근 기자 nova@

## 에스씨엠생명과학 새 대표에 '창업자' 송순욱 부사장 선임

세포치료제 개발기업 에스씨엠생명과학(SCM생명과학)은 설립자 송순욱 부사장을 신규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15일 밝혔다.



송 대표이사는 미국 메릴랜드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마치고 미국의 바이오벤처회사에서 근무하며 초대 5대 블록버스터급 항체치료제 중 하나인 허셉틴의 모체가 된 마우스 단일 클론 항체를 개발했다.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분자생물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유전자 치료제 분야 연구를 진행, 유전자 치료와 세포 치료 두 분야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경험을 두루 갖췄다.

2000년 인하대병원 중개연구센터장을 지낸 송 대표이사는 본격적인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을 시작하고 2014년에 에스씨엠생명과학을 설립했다.

유혜은 기자 euna@

## 인사

◆행정안전부 ◇과장급 전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행정지원과장 정진호 △국가기록원 행정지원과장 유재권 △정부청사관리본부 인천청사관리소장 윤병준 △대통령기록관 행정기획과장 홍신애 △기록서비스과장 고영석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총괄과장 김경직 △정보시스템2과장 원종갑 △광주센터 정보시스템2과장 김영진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산업정책관 최남호

◆관세청 ◇과장급 전보 △관세청 국제조사과장 박천정

◆미래셋자산운용 <해외법인 임원 승진> ◇상무 △홍콩법인 이필상 ◇상무보 △인도법인 홍준영 △Global ETF Holdings Asia ETF 조영래 ◇이사대우 △미국법인 윤호석 △홍콩법인 김진

◆LG그룹 ◇LX인터내셔널 △전무 이창현 △이사 조강희 최민 ◇LX판토스 △전무 노승현 △이사 최양욱 이종찬 이우석 김성주 ◇LX하우시스 △전무 이민희 김진하 △이사 강창원 김병철 유혜중 ◇LX세미론 △전무 고대협 △이사 김기상 사공영재 이민호 한영수 ◇LX MMA △전무 한상철 △이사 김재홍

◆한국일보 ◇디지털혁신실 △디지털미디어부장 안경모 △플랫폼개발팀장 김정영 ◇대외전략실 △사업1팀장 이용현 △사업2팀장 유원경

◆아시아투데이 △편집국 대기자 겸 상무이사 이경숙

◆일간투데이 △문화팀장(부국장) 이성중

## 부음

▲노종우(전 한국통신공사 근무) 씨 별세, 노위석(전 태평양ENG 상무)·대석·경희 씨 부친상, 박종호(예비역 육군 소령) 씨 장인상, 노태영(e대한경제 재계팀장)·태돈(경기북부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사)·영민·현진·태운 씨 조부상 = 14일, 대구 모래야장례식장 203호실, 발인 16일 오전 8시, 053-801-9999

▲진소상 씨 별세, 강기정(전 청와대 정무수석) 씨 모친상, 유귀숙 씨 시모상 = 15일, 광주 천지장례식장 302호, 발인 17일, 062-527-1000

▲김용연(세계일보 산업부 기자) 씨 별세, 김준수 씨 아들상 = 11일, 청주참사랑병원 장례식장 무궁화2호실, 발인 17일 오전 10시, 043-298-9200

## 스누피, 달 궤도 간다



아르테미스 I에 무중력지표로 탑승할 스누피 인형.

## 내년 2월 발사 아르테미스 I 탑승 선내 무중력 상태 알려주는 임무

미국 인기 만화 '피너츠'의 캐릭터 스누피가 미국항공우주국(NASA) 우주 프로젝트에 참여, 달 궤도를 간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12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스누피가 내년 2월 발사 예정된 아르테미스 I 우주선에 우주비행사 대신 마네킹 등과 함께 탑승해 달 궤도까지 다녀온다고 밝혔다. 아르테미스 I은 유인 비행(아르테미스 II)을 진행하기 전에 달 주변의 우주발사시스템(SLS) 로켓과 오리는 우주선의 각종 성능을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를 무인으로 진행한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스누피는 선내 무중력 상태를 알려주는 '특수임무'를 맡았다. 스누피는 25X18cm 크기에 무게 140g으로 제작돼 NASA 로고가 박힌 주황색 우주복을 입고 장갑과 신발까지 착용했다. 이 인형은 선내 각종 기기나 스위치에 부딪히도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가볍고 부드럽게 제작돼 유인 캡슐 오리온이 무중력 상태에 진입하면 공중에 떠서 제일 먼저 이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스누피와 NASA의 인연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아폴로 10호는 1969년 3월 유인 우주 비행선 아폴로 11호가 역사적 달 착륙을 할 지점 5만 피트 이내에서 최종 정찰(snoop)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사령선에는 만화 피너츠의 또 다른 주요 캐릭터인 찰리 브라운, 달착륙선에는 스누피라는 콜사인을 붙였다. 1990년에는 스누피 인형이 우주왕복선 컬럼비아호의 STS-32 미션에 참여해 첫 우주 비행을 했다.

이번만이 아니다. NASA에서는 아폴로 시대 때 우주비행사들이 비행 안전이나 임무 성공에 기여한 관계자에게 공로를 인정하고 감사를 표하는 '스누피 실버 상'을 제정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수상자에게는 우주에 갔다 온 스누피가 새겨진 배지를 수여한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 김헌동 SH공사 사장 취임 "분양원가 공개하겠다"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도 밝혀

김헌동(사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은 취임 일성으로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을 늘리고 분양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정식 임명된 김 사장은 같은 날 강남구 SH공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서울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무주택 시민께 양질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기 위해 토지임대부 주택(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 정책을 추진해 주택 가격 안정화에 앞장설 것"

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좋은 주택을 더욱 많이 공급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며 "대규모 택지는 물론 소규모 택지를 확보하고, 특히 역세권 등 교통과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했다. 이어 "서울 전 지역에 유희부지 등 토지를 확보해 공공택지로 개발하고 토지를 비축해 필요할 때 즉시 개발할 수 있도록 토지 발굴과 이를 위한 조직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SH공사의 투명한 경영을 위해 아파트 분양 원가 자료도 공개한다. 김 사장은 "시



김헌동 SH공사 사장

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주택 정보를 체계화해 공개하고, 정보공개 요구가 잦은 자료나 과거 10년간 공급된 아파트 분양 원가 등을 인터넷에 상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1981년부터 2000년까지 쌍용건설에서 근무했다. 2000년 이후에는 경실련에서 활동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 실패를 거듭 지적하면서 '저격수'로 불리기도 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 "우주서 태어난 인류, 휴가 가듯 지구 방문할 것"

베이조스, 포럼서 "우주 서식지가 화성 이주보다 현실적" 강조

제프 베이조스(사진) 아마존 창업자는 미래에 인류가 지구를 휴가지처럼 방문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14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베이조스 창업자는 워싱턴D.C.에서 열린 우주 탐사 정책 포럼인 '이그나티우스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베이조스 창업자는 "수세기에 걸쳐 많은 사람이 우주에서 태어날 것이고, 우주가 그들의 첫 번째 집이 될 것"이라며 "우주에

서 태어난 사람들은 옐로스톤 국립공원을 방문하듯 지구로 휴가를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구는 너무 작아서 문명의 성장과 에너지 수요를 지탱할 수 없으며, 결국 성장 대부분은 지구 밖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미래엔 떠다니는 원통형 우주 서식지에 100만 명이 살 수 있고 강과 숲, 야생동물이 함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쟁업체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



제프 베이조스

크 창업자가 과거 주장했던 '화성 이주'를 거론하면서 "(우주 서식지가) 화성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시도보다 더 실현 가능성이 있다"

고 주장했다.

베이조스 창업자는 외계 생명체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그는 "어떻게 그들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며 "이 은하계엔 너무 많은 별이 있고 은하계도 너무 많아 우리가 우주에서 유일하게 지능적인 생명체일 가능성은 점점 작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당신이 살아있는 줄 몰랐어, 주식을 더 팔라고?"

## 머스크, 이번엔 '부유세 주장' 샌더스 저격

일론 머스크(왼쪽 사진)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부유세 도입을 주장하는 버니 샌더스(오른쪽) 미국 상원의원을 저격했다. 억만장자세를 주장하던 론 와이튼 상원의원에게 입에 담지 못할 모욕 발언을 한 지 일주일 만이다.

14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샌더스 의원에게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는 "우리는 극도로 부유한 사람들에게 공정한 납부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힌 샌더스 의원의 트윗에 대한 답변 차원이었다. 머스크 CEO는 한 시간 뒤엔 "버니, 내가 주식을 더 팔기를 원하



나? 그럼 얘기를 해라"라며 비아냥거렸다. 지난주에도 머스크 CEO는 자신의 테슬라 주식 매각 설문을 지적하며 억만장자세를 촉구한 와이튼 의원에게 성적인 비속어가 들어간 모욕적인 트윗을 보내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일주일 만에 납세 관련 발언을 한 또 다른 의원과 트위터상에서 설전을 벌인 것이다. 고대영 기자 kodae0@

## 현대차 정몽구 재단 '온드림앙상블'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12일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2021 온드림앙상블 콘서트'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재단이 2014년 창단한 '온드림앙상블'은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의 클래식 음악 전공 장학생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음악가들의 지도, 전공별 앙상블 활동, 음악기로서의 재능과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등을 통해 문화예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재단이 지원한 문화예술 인제는 누적 2199명, 지원금액은 약 88억 원에 달한다. 김준형 기자 junior@

추창근 칼럼



주필

절대권력 시진핑, 더 거칠어질 패권전쟁

예나 지금이나 중국에 있어 한국은 변방이다. 더구나 미·중의 거대한 두 힘이 부딪히는 최전선(最前線)이 한반도다. 몰려드는 격랑의 파고(波高)는 더 거세질 것이다.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 중국이고, 안보는 미국과의 동맹에 기댄다. 지정학적 틈새에 낀 딜레마에 빠져 있다. 우리의 안보와 경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냉엄한 현실의 인식과, 제대로 된 한국의 좌표설정이 절실하다. 힘의 논리로 피아(彼我)를 가르치는 시대에 '전략적 모호성'은 설 땅이 없다.

중국공산당(中共)이 지난 주 열린 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에서 '역사결의'(歷史決議)를 채택하고 시진핑 당총서기 겸 국가주석을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에 이은 3대 영도자 반열에 올렸다. 역사결의는 1921년 창당된 공공이 시대전환을 선언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문건이다. 100년 동안 이번까지 단 세 차례의 역사결의만 나왔다. 그 무게와 의미가 가늠된다.

첫 번째는 1945년 이뤄졌다. 공공은 당시 모든 노선투쟁을 청산하고 마오쩌둥을 유일한 지도자로 규정했다. 마오는 1976년 죽을 때까지 절대권력을 행사했다. 두 번째는 덩샤오핑이 1981년 주도했다. 마오를 '위대한 마르크스주의자, 프롤레타리아 혁명가이자 전략가'로 평가하면서도, 문화대혁명의 과오를 비판하고 그의 우상화를 부정했다. 덩 또한 1997년 사망하기까지 최고지도자의 확고한 권력으로 개혁과 개방을 이끌었다.

이번 3차 결의는 '시 주석=당의 핵심'임과 '시진핑 사상'을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공공은 앞서 공산당 역사를 3단계로 구분, 마오가 새로운 중국을 세웠고(站起來), 덩이 중국을 잘 살게 했으며(富起來), 시는 중국을 강하게(強起來) 만들었다는 권위를 부각시켜 왔다. 내년 가을 공공의 20차

당대회는 시 주석 3연임을 결정할 게 확실하다. 이미 2018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헌법의 국가주석 3연임 제한조항을 없앴다. 마오의 장기독재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덩 집권 때 만든 규정이다. 이후 장쩌민 시대에 정치국 9인 상무위원들의 집단 지도체제로 이행했다. 그러나 이제 국가주석 종신집권의 길을 열었다. 시는 이미 당 총서기와 국가주석, 중앙군사위 주석 등 당·정·군 3권을 장악하고, 다시 우상화의 시대로 되돌리고 있다.

중국은 공산당이 만든 나라로, 입법·행정·사법 등 국가와 인민의 모든 것을 당이 지배하고 통제한다. 제왕적 위상의 시진핑 1인 지배체제가 뜻하는 바는 엄중하다. 시는 내부적으로 '공동부유'와 '인민민주주의'로 결속을 도모하고, 대외적으로 일대일로(一帶一路)를 앞세운 '중국몽'(中國夢)에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게 분명하다. 예전 '도광양희'(韜光養晦, 빛을 감추고 힘을 기른다)의 중국이 아니다. 시의 노선은 '주동자위'(主動作爲, 할 일을 주도적으로 한다)이다. 세계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고, 중국의 이익을 위한 충돌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미국과의 패권전쟁도 격화될 수밖에 없다. 미국은 도전을 용납하지 않겠으며, 무역과 안보의 중국 포위전략을 가동

하고 있다. 강한 힘의 총동로 국제 질서와 글로벌 경제구도, 지역안보 역학관계의 근본적이고 심대한 변화가 빨라질 것이다.

중국몽은 한마디로 '21세기 팍스시니카(Pax Sinica)'이다. 과거 '강했던 한나라와 번성했던 당나라'(強漢盛唐)의 부활로 비견되는데, 세계 중심인 중국에 바깥 존재들이 굴종해야 한다는 패권의 추구다. 미국 인구학자이자 중국전문가인 스티븐 모셔가 십수년전 쓴 '헤게몬'(Hegemon)이란 책이 통찰했다. 공공은 끊임없이 판도를 넓혔던 역사적 팽창주의, 모든 것이 자신을 중심으로 굴러갔다든 편집증적 민족주의, 여기에 한세기 전 서구열강의 침탈로 제국이 무너졌던 상처가 겹쳐 일관되게 패권국가에 집착한다는 것이다. 그 맥락에서 경제발전으로 인한 시장의 힘이 중국을 현대적 인류보편의 가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 국가로 바꿀 것이라는 기대는 착각이라고 주장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미는 심각하다. 예나 지금이나 중국에 있어 한국은 변방이다. 더구나 미·중의 거대한 두 힘이 부딪히는 최전선(最前線)이 한반도다. 몰려드는 격랑의 파고(波高)는 더 거세질 것이다.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 중국이고, 안보는 미국과의 동맹에 기댄다. 지정학적 틈새에

낀 딜레마에 빠져 있다.

우리의 안보와 경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냉엄한 현실의 인식과, 제대로 된 한국의 좌표설정이 절실하다. 힘의 논리로 피아(彼我)를 가르치는 시대에 '전략적 모호성'은 설 땅이 없다.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인권가치에 기반한 대한민국 주권과 정체성을 공유하고 협력하면서 경제의 지속적 번영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는 과연 어디인가? 우리가 어떤 선택의 지렛대로 국력을 키우고 위상을 높일 공간을 만들 수 있는가?

지금 국가리더십에 국제 질서의 전환기적 변혁을 통찰하는 지성, 위기의 인식과 공감 능력, 국가 생존전략에 대한 고민, 해야 할 일의 자각이 없다. 흘러간 이념과 과거에 갇힌 자폐적 정치논음에만 골몰해 성장과 경제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반(反)국익의 헛발질만 거듭하고 있다. 중국의 한국 다루기가 갈수록 안하무인식으로 거칠어지는데도 우리는 수치스러운 굴종 외교로 국격을 떨어뜨리고 안보동맹을 훼손해 왔다. 몇 달 후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들에게서도 세계 패권전쟁을 헤쳐나갈 식견, 비전과 리더십의 어떤 신뢰가 보이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혼돈의 시대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의 미래가 답답해지고 있다. kunny56@

정책발언대



박철웅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

'K-기술' 해외이전으로 새로운 도약을

이투데이, 말투데이

우리나라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만한 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BTS는 UN에서 한국어로 연설을 했고, 공식 온라인 채널을 통해 98만 명이 동시 접속해 그 연설을 실시간으로 지켜봤다.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 회자되고 수많은 패러디를 양산하고 있는 '오징어게임'은 넷플릭스 가입 83국에서 모두 시청률 1위를 기록하는 등 전대미문의 흥행을 보인 바 있다.

과학기술은 어떠한가? 우리는 이미 반도체 1위, 자동차 4위, 기계 6위 등 여러 분야에서 세계 상위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여겼던 우주·항공 분야에서도 지난달 21일에 순수 우리 기술의 발사체를 이용한 누리호 3단 로켓을 발사함으로써 세계 7번째 우주 강국의 반열에 들어갈 기반을 마련했다.

이처럼 한국의 높아진 위상은 영화, 드라마, 음악 등 콘텐츠를 넘어 식품, 화장품, 바이오 등 여러 과학기술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젠 K-콘텐츠, K-푸드, K-기술 등 'K'는 한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에서도 당연시된 지 오래다. 전 세계 206개 국가 중 K로 시작하는 다른 7개국의 처지에서 보면 기가 찰 노릇이다. 그럼에도 어찌겠는가? 최근 국가브랜드진흥원에서 밝힌 한국의 브랜드 파워는 6위(작년 8위)로, 상표법 상으로도 식별력이 약해 등록이 어려운 표장도 사용 주체의 노력으로 저명해지게 되면 등록을 허여해 주거나 일정한 권한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으니 말이다. 노력에 대한 달콤한 보상이니 셈이다.

우리는 높아진 위상에 맞게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만 한다. 특히 한국의 높은 기술력이 접목된 다양한 K-제품, K-기술을 만들고, 해외 기술이전을 통해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과 기반을 갖춰야 한다.

특허청의 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기업 중 보유한 지식재산을 해외기업 등으로 매각·이전한 경우는 0.2%에 불과하다고 한다. 대학·공공연구소의 기술을 해외기업 등으로 매각·이전한 비율은 6.1%로 높은 편이지만 특정 기관에서 다수의 지식재산을 해외로 이전한 사례가 반영된 결과이다. 하물며 국가가 보유한 특허는 오죽하겠는가? 특허청으로부터 농축산 분야 국유특허의 처분업무를 위탁받은 우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경우 지난해 1704건의 국내기관 중 최대 기술이전 실적은 달성했음에도 해외이전 건수는 없다.

해외 기술이전을 확대하려면 '해외이전=기술유출'이란 낡은 사고부터 없애야 한다. 디지털, 통신 등의 발전으로 국가 간의 벽이 급속하게 허물어진 현 글로벌 시대에는 더욱더 어울리지 않는다. 한국약품이 다국적 제약회사 베링거, 사노피, 안센 등으로부터 2015년부터 6년간 기술료 6800억 원을 번 것을 두고 기술수출의 우수사

례로 판단하지 미국 기업이라 욕하지는 않는다. 글로벌 환경에 맞게 다양한 기술이전 유형을 취사선택해 서로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자생력은 한국인이라면 충분히 갖고 있다.

'K-기술'의 위상이 높아진 시점에 맞춰 우수한 기술을 해외로 이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한 주체만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는 여러 민간거래기관 등이 해외이전 시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활발한 기술검색, 상담이 가능한 해외이전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전 성사 수수료 등을 현실화해야 한다. 거래기관에서는 각국의 법률이해, 계약서 작성, 협상력 등 전문성을 확보하면서 메타버스 등 새로운 마케팅, 상담 채널을 활용할 수 있는 변화와 긴밀한 해외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기술공급자는 해외이전을 고려한 연구개발, 해외 IP 확보, 기술전수 노력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 장 르 달랑베르 명언  
"형이상학과 수학이아말로 상상력이 가장 중요한 구실을 하는 학문이다."  
프랑스의 수학자·물리학자·철학자. 역학의 일반화의 기초를 닦아 해석역학으로의 전개를 마련함으로써 역학 발전의 한 단계를 이룩하였다. 오늘은 그가 출생한 날. 1717-1783.

☆ 고사성어 / 불문곡직(不問曲直)  
굽고 곧음을 묻지 않는다는 뜻.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행동한다는 말. 사기(史記) 열전(列傳) 이사전(李斯傳)이 원전. 진나라에서 벼슬한 이사(李斯)는 초나라 사람. 다른 제후국의 신하는 믿을 수 없으니 쫓아내야 한다는 '촉객(逐客)' 상소에 맞서 그가 진시황에게 올린 상진황촉객서(上秦皇逐客書)라는 상소문에서 나왔다. "지금 사람을 쓰는 것은 그렇지 않아서, 가부를 묻거나 곡직을 가리지도 않고서 진나라 사람이 아닌 자는 떠나가게 하고 손님들은 내 쫓으시려 하시니[今取人則不然 不問曲直 非秦者去 爲客者逐], 이는 천하를 통치하고 제후를 다스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 시사상식/고통지수(misery index)  
삶의 고통을 계량화한 지표.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하고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빼서 구한다. 이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한 나라의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고통이 늘어난다. 1975년 미국 경제학자 아더 오코니가 최초로 고안했다. 이후 1999년 미국 하버드대 배로 교수가 오코니의 고통지수에 국민소득 증가율과 이자율을 감안한 '배로고통지수'(BMI; Barrow Misery Index)를 발표하기도 했다.

☆ 속담 / 조밥에도 큰 덩이 작은 덩이가 있다  
무엇이든 크고 작은 것의 구별이 있다는 말.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기자수첩



문수빈 / 금융부

'NO' 융위원회, 'NO' 융감독원

'내 돈에 따른 내 이자' 당연한 원칙이었다. 내가 은행에 돈을 넣으면 그로 인한 이자는 당연히 내 돈이다. 하지만 이런 마땅한 규칙은 누군가의 개입으로 틀어지게 됐다. 바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가 같은 빅테크다. 빅테크들은 고객이 돈을 충전하면 그 돈을 외부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가이드라인' 때문이다. 가이드라인이라 강제성은 없지만 현재 대부분의 전자금융업자가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전자금융업자들이 송금까지 할 경우 고객 충전금의 90%, 송금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는 50%를 은행과 같은 외부기관에 돈을 맡기게 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다.

현재는 이 이자를 빅테크가 가져가고 있다. 이자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이자로 가져가는 수익은 빅테크마다

다르지만, 최대 수십억 원으로 추정된다. 적다면 적다고 볼 수 있는 규모다. 그러나 앞으로 선불충전금 시장이 더 커지고, 고객의 선불충전금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빅테크가 고객의 돈으로 버는 이자는 더 많아질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을 묻자 금융당국 관계자는 빅테크가 외부신탁으로 얻은 이자를 고객에게 충전금 이자로 돌려주면 은행과 같은 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은행업 라이선스가 없는 빅테크가 유사은행업을 하

면 안 되기에 고객의 돈으로 발생한 이자를 돌려주지 않는 현상을 묵인하겠다는 것이다. 빅테크가 이 이자를 고객에게 돌려줄 수 있는 법은 충전금 이자 외에도 리워드와 같은 대(對)고객 혜택이 있다.

빅테크들은 현재도 신탁으로 인한 이자를 고객에게 리워드로 주고 있다고 했지만 고객이 리워드 포인트로 얻는 건 대다수의 경우 2포인트(P), 3P다. 신탁 이자로 얻는 수익만큼 리워드를 줘야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대책은 불가능하다며 'NO'를 외치는 금융당국. 수많은 'NO' 속에 빅테크가 손 안 대고 배를 볼릴 판은 착실히 만들어지고 있다. bean@

<b>'이투데이'</b>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쇄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주필 추창근 편집국장 김중훈	주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논설실 (02)799-2669 자본시장부 (02)799-2648 IT중소기업부 (02)799-2646	정치경제부 (02)799-2663 금융부 (02)799-2665 유통바이오부 (02)799-2641	사회경제부 (02)799-2612 부동산부 (02)799-2637 디지털미디어부 (02)799-2643	국제경제부 (02)799-6741 산업부 (02)799-2644 사진영상팀 (02)799-6745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양도세 완화 지연과 거래 절벽

팔려는 사람도, 사려는 사람도 없다. 이 러니 거래도 뚝 끊겼다.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 얘기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652건 (계약일 기준)으로 전월 (2695건)보다 38.7% 줄었다. 월별 기준으로 올해 최소치다.

## 데스크칼럼

### 조철현

부국장 겸 부동산부장



원에 샀던 주택을 5년 보유, 5년 거주한 1 주택자가 16억 원에 팔 경우 양도세가 6500만 원에서 940만 원대로 줄어든다.

여당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전 두 차례 의원총회를 열고 6월 당론으로 확정했다. 그런데도 이 소득세법 개정안은 아직까지 본회의에도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여당이 '부자 감세'라는 여론 내 비판을 의식한 때문으로 보인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낮잡'을 자면서 아파트 매매시장은 그야말로 거래 절벽에 직면하고 있다. 법 적용 시점에 따라 양도세가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씩 차이 나기 때문에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도를 아예 미루거나, 기존 계약자들은 잔금 납부일과 등기일을 최대한 늦추는 분위기다. 온라인 부동산 카페에선 "매수자에게 잔금 납부와 등기일을 최대한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의 글이 많이 올라오기도 한다. 실제로 8-10월 실거래 계약이 체결된 매매가 9억 원 초과 아파트 매물의 등기와 잔금 납부가 지연된 사례가 늘고 있다.

들끓는 '부동산 민심'에 결국 여당은 그동안 미뤄왔던 1주택자 양도세 완화 카드

를 다시 꺼내 들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 위 조세소위 논의를 시작으로 양도세 개편 작업에 속도를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여부는 부동산 세제 완화를 반대하는 여론 내 강경파의 의견 추이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여론의 움직임에 따라 결정날 전망이다.

부동산 세제 조정은 정치 논리로 풀이 선안 된다. 거래 두절과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법안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 사항은 중부세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필요하다. 국회는 8월 말 1주택자 중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끌어올렸다. 14년 만의 상향 조정이다. 주택 보유세는 낮춰주면서 매물 증가 효과로 집값 안정에 기여하는 거래세는 14년째 그대로 두는 것은 거꾸로 가는 조세 정책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다. 여당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에는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양도 차익에 따라 차등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1주택자라도 양도 차익이 과다하면 장기 보유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1주택 실소유자도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주택 장기 보유 유도, 주거안정이라는 정책 취지에도 어긋난다. 장기 보유 1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다. 세금 혜택이 줄면 누가 오래 한 주택에 거주하겠는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choch21@

## 사설

# 가계부채 세계 최고, 커지는 부실폭탄 위험

나라경제 규모와 비교한 한국의 가계부채가 세계 37개 주요국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년간 부채 증가속도는 가장 빨랐다. 이 같은 부채의 부실위험과 함께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국제금융협회(IIF)가 15일 내놓은 세계부채보고서의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세계 37개국(유로존은 단일 통계) 중에서 한국이 104.2%로 최고였다. 조사 대상 가운데 한국만 유일하게 부채 규모가 GDP를 넘었다. 다음으로 홍콩(92.0%), 영국(89.4%), 미국(79.2%) 등이었다. 1년 전(98.2%)과 비교한 이 비율의 증가폭도 6.0%포인트(p)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홍콩(5.9%p), 태국(4.8%p), 러시아(2.9%p) 순이었다.

한국은행 통계에서 2분기말 가계 신용잔액은 1805조9000억 원으로 1년 사이 168조6000억 원(10.3%) 늘어났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금융완화가 이어졌고, 집값이 폭등하면서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과 '빚투' (빚내서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가 급증한 데 기인한다.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은 더 강조할 필요도 없다. 가파르게 늘어난 빚이 자산거품을 초래한 상황에서 앞으로 이자부담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 한은은 지난 8월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 데 이어, 이달 한 차례 더 올

릴 것이 유력하다. 가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이자만 연 5조8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소비를 위축시키고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요인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역제를 위해 전방위로 돈을 풀고 있다. 금리도 인상 기조가 뚜렷하다. 하지만 누적된 부채 해소과정에서 다중채무자와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빚의 부실화 위험이 높아지고, 금융과 실물 경제 전반에 타격을 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갈수록 커진다. 연착륙의 마땅한 대책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보험연구원도 가계부채 문제에 재정과 금융당국 외에 국토교통부의 책임도 크다고 주장했다. '주요국가 가계부채 조정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서다. 결론은 선진국에서도 주택가격 조정 없이 가계부채가 조정된 경우는 없었다며, 집값을 내리는 것이 가계부채 해결의 전제조건이라는 내용이다.

거둬둔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집값이 급등해 가계빚을 심화시켰다는 얘기가. 그동안 공급은 외면하고 온갖 규제와 세금폭탄을 퍼부었지만 집값만 올린 정책에 대한 비판과 다름없다. 결국 가계부채도 부동산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없이 연착륙이 어려운 실정이다.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약화된 경제체질도 심각한 위기 요인이다. 기업활력을 높여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가계여력을 키우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 노트북을 열며

유현희  
유통바이오부 부장대우



# 붕어빵에 붕어 없으면 유죄?

돼지갈비 양념을 재워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갈비버거'나 '갈비만두'도 갈비 양념맛을 낸 뿐 돼지갈비를 원료육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명륜진사갈비의 유죄 판결에서 우선 '갈비'라는 명칭의 정의부터 생각해 봐야 한다. 돼지갈비가 갈비 부위를 원료로 해야 한다는 원칙은 식품 관련 규정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갈비는 갈비뼈 부위를 말하지만 갈비 부위가 제한적이라 보니 어느새 갈비는 돼지나 소고기를 양념에 재운 메뉴를 일컫는 말로 굳어졌다. 그럼에도 유죄 판결을 받은 명륜진사갈비는 역울할 수 있다.

비록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명륜진사갈비에 대한 재판부의 의견도 일치한다. 재판부는 명륜진사갈비의 가격표 내지 메뉴판에 기재된 '돼지갈비'라는 표현은 축산물 명칭(식육의 부위명칭)을 광고한 것이라기보다 '돼지갈비로 만든 음식'이라는 의미로 사용돼 식품의 명칭을 광고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돼지갈비'라는 제품명으로 광고할 뿐 원료육의 함량에 대해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것을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 역시 갈비라는 음식을 특정 부

위에 제한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도 명륜진사갈비는 역울함을 호소할 만하다. 일반음식점 영업자의 경우 소, 닭, 돼지 등 원료육 '종류'와 '원산지' 표기 의무만 있을 뿐 '부위'에 대한 표시 의무는 없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부위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명륜진사갈비의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목전지 함량을 누락한 점이 유죄 판결의 발미를 제공했다.

그동안 명륜진사갈비는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서도 목전지의 사용을 공개해 왔다. 갈비라는 명칭이 메뉴 이름일 뿐 원료육을 의미하지 않는데도 소비자 신뢰를 얻기 위해 원료육명까지 공개했지만 일부 가맹점이 표시광고를 위반한 것이다.

마약 떡볶이에는 마약이 없고,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 그렇다고 표시광고 위반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번 사건으로 바나나맛 우유처럼 명륜진사갈비가 부위를 전량 갈비로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소비자들은 더이상 현재 가격으로 무한리필 돼지갈비를 즐길 수 없을 지도 모른다.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외식 메뉴 브랜드에 가해진 철퇴가 안타까운 이유다. yhh1209@

## 특허, 특!

# '오징어게임'의 상표·디자인권

'오징어게임'의 인기는 한국의 드라마 제작 능력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기도 했지만, 엔터테인먼트에서 지식재산권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제대로 확인시켰다. 오징어게임의 드라마 명칭을 패러디한 수많은 이름들이 유행하고 있고, 오징어게임에 등장했던 코스튬은 인터넷에서 헬러인 코스튬으로 인기리에 팔렸다.

하지만 오징어게임의 콘텐츠가 지식재산권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징어게임은 넷플릭스를 통하여 2021년 9월 17일 방영되기 시작했는데, 넷플릭스는 약 2년 전인 2019년 8월 30일에 오징어게임을 41류인 디지털콘텐츠의 온라인 제공업을 지정하여 상표출원을 하였고, 해당 상표출원은 2020년 10월 20일자로 등록되었다.

오징어게임이 방영 이후 인기를 얻자 9월 27일에 2건, 9월 28일에 2건, 9월 29일에 1건의 제3자에 의한 모방 상표출원이 이루어졌다. 그러자 넷플릭스는 9월 30일자로 뒤늦게 9, 16, 18, 21, 25, 28, 41류에 대하여, 10월 20일자로 3, 14, 24, 30, 35, 43류에 대하여 추가 상표출원을 진행하였다.

즉, 넷플릭스가 드라마 방영 이전에 준비했던 지식재산권은 41류를 지정하여 출원했던 상표권 한 개뿐이었던 것이다. 원칙적으로 상표권은 선출원주의에 의하여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부여되므로, 41류 이외에 대해서는 제3자의 모방 출원이 등록되고, 넷플릭스의 후출원은 거절됨이 원칙이다. 다행인 것은 오징어게임의 저명성으로 인해 제3자의 모방 출원은 상표법 34조1항12호의 수요자 기반 우려 조항이 적용되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넷플릭스는 코스튬 및 소품에 대해서는 디자인출원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행인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2조1항 자목에 의하여 오징어게임 방영 이후 3년 이내의 모방품 판매에 대해서는 넷플릭스가 판매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일부 보호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디자인권을 획득하지 않은 것은 많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디자인권은 권리 존속 기간이 20년으로 길고 권리 행사도 부정경쟁방지법보다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세상을 바꾸는 금융

# Future is Calling

중학교 1학년 육상선수 배운진과 최명진

“가장 힘들 때요? 열심히 뛰었는데 간발의 차이로 기록을 깨지 못했을 때 가장 힘들었어요^^”

“친구들과 놀고 싶냐구요? 당연히 놀고 싶죠 근데 놀고 싶다고 다 놀면 기록은 영원히 못 깰 것 같아요ㅎㅎ”

어리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 한계에 도전하는 배운진, 최명진 선수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KB금융그룹은 두 어린 선수들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기본으로 세상을 바꾸다  
**KB금융그룹**



부원여중 100m 육상선수 배운진



이리동중 100m 육상선수 최명진